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심을 다시 감사드리며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의 신실하심으로 항상 지켜 주소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의 손길로 새롭게 하시고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1월 20일 (토) 제 1953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로잔에서 서울까지, 왜 서울 2024인가?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며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4차 로잔대회(일명 서울 2024 대회)가 개최된다. 이 중요한 모임과 이 모임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될 다년간의 다중심적인 로잔4(L4) 여정의 목적은 예수님의 지상대위임령 성취를 위한 협력적 행동을 가속하는 데 있다.

도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마 28:19-20)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인구 중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30퍼센트를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말씀을 증인할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다. 도처에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사람들, 장소들이 있다. 수많은 교회와 일터의 분야에서 시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사회 곳곳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상대위임령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이며, 로잔운동이 추구하는 세계 선교는 가정, 직장, 지역 사회, 사회 전반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 교회에는 진정으로 포괄적이며, 조율된 그리고 협력적인 세계 선교가 부족하다.

우리는 전 세계 교회가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믿는다. 한 국가, 한 민족, 한 교파 혹은 문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양하지만, 한 몸된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 이 사명을 향한 진전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4년 전 로잔운동의 지도층은 이를 염두에 두고 네 번째 국제대회를 소집하고, 이 대회까지 이어지는 다년간의 과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현재 격차가 존재

하는 곳과 새로운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파악하기 위한 여정을 전 세계, 또 각 지역에서 계속해 왔다.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현재 격차가 존재하는 곳과 새로운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파악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 왔다. 또한, 가장 큰 도전 과제와 가장 눈에 띄는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획기적인 혁신과 고무적인 돌파구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우리는 협업을 통해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경청하고, 모으고, 배우며 함께 행동하는 여정을 계속 이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현존하는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에서 가능할 수 있는 협업 이니셔티브(Initiatives)와 협업 행동팀(Collaborative Action Teams)이 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삼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지상대위임령의 성취를 목표로 삼을 것이다.

경청의 과정

지난 3년 동안 로잔운동은 전 세계 다양한 계층을 초청하여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경청하는 과정을 가졌다:

1. 지상대위임령의 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격차 혹은 남아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2. 지상대위임령의 성취를 가속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돌파구 또는 혁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면으로 계속)



BBC, 북한, 한국 드라마 유포한 중학생에 수감 채우고 12년형 전례없는 처벌 강화, 미성년자에게도 성인과 같은 형량

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끌려 나왔다.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곧장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북한에서도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개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교양단련대로 보내진다. 보통 5년, 길어도 10년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노동교화소 12년형, 성인과 같은 형량이다. 그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년들에게 이어 담임 교원, 지역 청년동맹 책임지도원의 신상까지 가감없이 공개됐다. 사회적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두 소년의 가족들은 평양에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전례 없던 일들이다.

북한 새해 카드에 '주체112' 무슨 뜻?... '수령=신'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
이 장면들은 BBC 코리아가 입수한 북한의 '학습제강' 영상이다. '제강'은 철강 속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중반 평양시가 주민 학습용으로 배포한 것을 내부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북한은 이러한 내부 자료의 외부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화면 속 평양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영상 속 언급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은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로 짐작된다.

북한, 남한식 '오빠', '자기야' 말투 못 쓰게 손전화 앱까지 개발?

(9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이종원 목사

4면



성경적 회복 Biblical Recovery 김동진 학감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디모데목회훈련원 목회자세미나
다음세대에 교회를 섬길 목회자
디모데목회훈련원 목회자세미나, 다음 세대에 교회를 섬길 목회자들을 초청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24년 1월 29일(월)-30일(화) 오전 9:30~오후 3시 뉴저지 동산교회(윤명호 목사 담임) 201-229-1561 210 Washington Ave, Little Ferry NJ 07643	2024년 2월19일(월)-20일(화) 얼바인 베델교회(김한호 목사 담임) 949-854-401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2024년 3월4일(월)-5일(화) 버지니아 코이노스영성성장로교회(오건 목사 담임) 703-818-9200 15015 Braddock Rd Centreville, VA 20120
--	--	--

참가자격: 교회 개척하시는 목사 및 준비하시는 분, 개 교회 사역하시는 부목사 및 전도사
참가비 없음, 식사 및 선물증정
연락처: 201-954-1193, 267-300-4740

강사: 이용걸 목사 (필라 영성성장로교회 원로목사, 디모데목회훈련원 원장)
한국 총회신학교 졸업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졸업

주 관: 디모데목회훈련원 PTSI
후 원: 뉴저지 동산교회 | 얼바인 베델교회 | 버지니아 코이노스영성성장로교회

디모데목회훈련원 (Pastoral Training & Supporting Institute For Church Growth)
195 Central Ave #4502 Metuchen, NJ 08840
Tel: 201-954-1193, 267-300-4740 www.ptsimission.org

발행인 칼럼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새해에도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그 향배(向背)를 알 수 없고, 새로운 군사적 마찰이 곳곳에서 잦아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고조(高調)되는 남북 간의 긴장, 총선을 앞둔 여야의 힘겨루기는 많은 이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올해 치러질 미국 대선의 결과는 어떤 방향이든 그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예측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전개될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새해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는가.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책이 있다. 삶과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지었다는 이지훈 저자의 책은 발행 된지 꽤 지났는데 아직도 모든 영역에 여운이 가득하고 그 실용성이 생생한 책이다. 그 책의 full 제목은 "흔·창·통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이다. 저자가 설명하는 각 용어의 개념은 이렇다. 흔(魂)-사람을 움직이는 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비전이 사람을 움직인다. 창(創)-매일 새로워지는 일, 끊임 없이 '왜'라고 물어라. 그러면 열린다. 통(通)-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 만나라 또 만나라. 들으라, 잘 들으라. 이 정도면 새해에도 다분히 개인이나 사업의 현장에 유용한 책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해를 살아가는데 충분한 "셋"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라고 묻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았다면 어떤 "셋"이 가장 적절할까? 필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주저 없이 다음 셋을 말하리라. 그것은 다음 아닌 "신·망·애"이다. 신(信)-믿음이며 불확실한 시대를 건널 수 있는 발이다. 망(望)-소망이며 암울한 현실을 넘어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다. 애(愛)-사랑이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다. 어떤 지성인(知性人)의 견해가 아니다. 완전한 진리, 성경이 말씀한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전 13:13) 그렇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믿음, 소망, 사랑은 영구(永久)히 남아 있다. 영원히 있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산다면 제 아무리 불확실성의 시대라 하여도 무엇이 문제일까. 운전 면허증이 없으면 먼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먼 길은 커녕 1m도 갈 수 없고 아예 출발도 못한다. 새해도 벌써 스무날이 지나고 있는데 영적 license, "신·망·애"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올해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이었다.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신·망·애"는 일상을 넘어선 기적의 언어이다. 믿음이 있는 곳에 싸매임과 일어남과 살아남의 각양(各樣) 기적도 항상 함께 있었다. 소망은 어떤가. 소망은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밝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니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요, 그런 소망이 가져오는 결과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일 뿐이다. 그리고 사랑은 어디서든 엄청난 감동의 이야기를 만든다. 메마르고 척박한 세상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넘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적이겠는가. 누구든 "신·망·애"를 가지고 출발하였다면 2024년도는 불확실한 날이 아니라 확실한 기적의 매일이 되리라.

이제, 새해가 더 흐르기 전에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공연(公然)한 일일까. "신·망·애"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

당신 안에서 책이 나오고 싶다고 꿈틀거리지 않는가?

나는 적지 않은 야심만만한 작가들로부터 자신 안에서 책이 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대체로 그건 한 장(chapter) 정도이다. 그게 아니면 블로그에 올릴 정도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책을 써야 한다고 말할 때도 있다. 누군가가 괜찮은 집필 아이디어를 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어쩌면 그게 당신일 수도 있다. 글쓰기 아이디어 또는 실제 글쓰기에는 뭔가 매력적인 면이 있다. 내 속에 과연 책을 낼 정도로 통찰력 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주제로 여러 번 대화를 가졌다. 작가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때로는 출판사 모자를, 또 때로는 작가의 모자를 쓴다. 상황에 따라서 양쪽에 다 참여하기도 하고 또 둘 사이를 오가기도 한다. 나는 글을 쓰는 데에 무슨 과정이 필요한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그들의 아이디어가 책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좋은 칼럼이나 에세이, 블로그 게시물로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쓰기는 읽기에서 시작한다

책을 쓰고 출판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시작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새로운 세상은 훌륭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좋은 제안서는 다른 책을 읽는 데에서 시작한다.

글쓰기는 읽기에서 시작한다.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어야 한다.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의 말이다. "작가의 시간 중 가장 많은 부분은 글을 쓰기 위해 읽는 데 소비된다.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작가라면 도서관의 절반을 뒤집을 것이다."

관심 있는 주제를 충분히 읽고 나면, 책의 개요를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안서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책 한 권을 다 채울 만큼 충분한 콘텐츠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책을 쓰겠다는 생각은 제안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사라진다. 어느 지점에서가 아직 내가 책을 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쌓은 경험과 역량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 계속 읽고 계속 고민하라.

플랫폼 질문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책을 쓰는 데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쓰고 싶어 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전작이 없는 초보 작가의 책을 접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특히 요즘 들어서 작가들은 대체로 출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플랫폼 구축이나 신뢰도 구축 등의 노력을 거쳐야 한다. 좋은 실든 출판사는 수요가 많은 주제를 다루는 플랫폼을 찾기 마련이다.

이것은 초보 작가에게는 가장 낙담스러운 측면일 수 있지만, 글쓰기의 리듬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글쓰기 습관을 들이는 데에 도움을 주는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에 작품을 게시하기 시작하면서 소규모 청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작가와 연결을 맺거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신의 동기가 단지 출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여야 한다.

시작하라: 계속하라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서점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독사까운
(323) 737-7699

교회인쇄물·한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신년 교회배너 | 한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 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4학년도 봄학기 입학안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마감: 2024년 1월 26일(금) 오후 6시
원서 교 부 처: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 학 시 험: 2024년 1월 27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개강 부흥회: 2024년 1월 29일(월) - 1월 31일(수) 저녁 7시 45분
문 의 처: 학감 정기태 목사: 917-733-7387
행정실장 김신정 전도사: 646-708-1101
사무실: 718-463-7163 / www.rptseast.org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특 전
1)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2)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심사 후 Scholarship을 지급함)
3)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토기장이 북카페(도서관)'가 있음
4) 목회학석사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5) 졸업생은 원할 경우에 2년 인턴 과정 후, 심사를 거쳐 개척교회 지원함
6)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로잔에서 서울까지, 왜 서울 2024인가?

(1면에서 계속)

- 3. 지상대위임령의 성취를 위해 어떤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가?
 - 4. 어떤 분야의 연구가 더 필요한가?
 - 5. 우리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별하고 2050년 세계 선교의 최전선에서 일할 차세대 리더를 준비하기 위해 글로벌 공청회를 주최하고, 세계 및 지역 모임을 통해 경청에 참여하고, 포커스 그룹을 개최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서울 선언문

우리가 말하는 격차 중 일부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부 격차는 성서적 그리고 신학적 이해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신학위원회 역시 로잔의 세 가지 기본 문서, 즉 로잔언약, 마닐라 선언문 그리고 케임브리지 선언문을 토대로 다져서 위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 서울 선언문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재확인하고 성서적 통찰력, 명령, 그리고 우리 시대에 대한 의미를 강조할 것이다. 2024 서울 대회는 이러한 다년간 경험 과정의 정점이자, 현재까지

확인된 격차와 기회를 모두 다루기 위한 협력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서울 2024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보여줄 기회이다. 처음 세 차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대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 1989년 필리핀 마닐라; 그리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었다. 앞선 세 대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번 서울 대회는 5,000명의 현장 참가자와 5,000명의 온라인 참가자가 모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선교에 영향을 미치는 남녀가 '현세대에 단 한 번' 함께 모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자는 젊은, 노년 세대를 모두 포함하며, 일터는 물론 교회와 선교 관련 직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대표할 것이다.

로잔의 한 리더는 서울 2024를 '사일로(silos)의 혼합'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탄생하며, 새로운 협업 행동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회 시작 전 준비 과정과 주제 강연, 테이블 그룹 대화, 그리고 오후에 진행되는 다양한 분과 세션을 통해 참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참가자들이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협력하여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필요와 격차, 전략적 기회를 다룰 기회를

허락할 것을 믿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각 지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한 몸으로 지어졌음을 상기시킨다. 이런 모임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 2024는 지상대위임령의 성취를 위한 협력적 행동에 속도를 붙일 것이다.

양극화되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세계 교회가 가장 주된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극화되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세계 교회가 가장 주된 사명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주권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도움이 필요한 혼란스러운 바다에서 희망과 방향의 등대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로잔은 네 가지 비전이 함께 하는 여정에서 세계 교회를 인도해 왔다:

-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 모든 사람과 지역을 위해 제자 삼는 교회
- 모든 교회와 사회 부문을 위한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
-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협업 행동을 위한 헌신

이 여정 동안 우리는 예루살렘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든 틈새를 성벽과 성문의 재건을 통해 메꾸는 느헤미야

의 소명을 떠올렸다. 느헤미야 4:6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 아니라.' 느헤미야 3장에 묘사된 것처럼, 이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일부는 개인으로, 일부는 팀으로 참여했다. 이 모두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한데 모아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로잔운동은 2024년 대회를 필두로 출범할 '협업행동팀'이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고자 한다. 로잔은 이 팀을 통해 전략적 협력과 세계 자원의 공유를 촉발하는 연결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업무 중복과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일로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전 세계 수천 개의 단체가 함께 협력 행동을 약속하는 '협업 행동을 위한 헌신'에 함께 하는 것이다.

어언 50년 동안 로잔운동은 세계 선교를 가속하는 데 힘써왔다.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협업 행동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이 땅 모든 나라의 신자들과 함께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선포하자'라고 외치기를 소망한다.

by David Bennett, lausanne.org

시론

'하나님의 언어' 로 살아가자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컴퓨터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던 시절, 투박하고 커다란 그 기계는 마냥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 주판과 계산기를 사용하던 때 나타난 컴퓨터는 문과(文科)인 나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연필이나 만년필로 원고지를 채워가거나 흰 종이에 운(韻)을 맞추고 행간(行間)을 정돈해 마무리한 글을 읽으며 지식을 채우고 마음을 정돈하던 글쓰기 습관이 바뀌게 되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나타난 모니터 화면에서 글을 정돈하는 글쓰기 습관은 오히려 손 글씨로는 글쓰기가 불편해질 정도가 되었다. 한마디로 설교문 작성도 컴퓨터 자판으로 더 수월해진 상황이 되었다.

처음 컴퓨터를 배울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것이 바로 컴퓨터의 체계(體系)였다. '컴퓨터는 단순하게. 1과 0으로 소통하는 기계이다'라는 말을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할참 지나 컴퓨터의 '1과 0'의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첫 배움 당시 강사의 이 설명이 기억난다.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0과 1이라는 숫자 외에 2~10까지와 같은 다른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학에서 배운 진법(進法)을 모르는 바 아니었고, 초등학교 때 암기한 구구단을 수 십년 넘게 사용하면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법(Binary)으로 이루어진 컴퓨터의 세계는 낯선 나라 같았다.

새해, 우리는 컴퓨터 세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2024라는 큰 숫자 속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1과 0의 나라'인 컴퓨터가 2024라는 숫자 속에 담긴 365일의 날들을 이미 자기 수하에 두고 이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달력과 수첩에, 전화기 시간표에 우리는 국경일과 병원할 날, 친구와의 약속, 누군가의 생일 등을 저장한다. '0과 1의 체계'를 이해하는 못하든 상관없이, 비트(bit)와 바이트(byte)를 연구하지 않고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활용한 여러 작업들을 할 수 있고 무려 엄청난 숫자인 테라바이트(TB)도 내장 외장의 단위로 알맞은 기기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하며 살아갈 것이다.

새해, 성경읽기, 성경쓰기, 성경공부가 시작되었다. 교회가 성경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은 컴퓨터 원리강좌를 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실생활에서 컴퓨터를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하는 것 같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아니 담겨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성경말씀이 삶 속에 녹아져 들어오도록 교회가 돕는 것이다.

성경이 어렵다고? 레위기는 골치 아프다고? 마태복음은 나와 관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라고? 마치 계룡산에 몇 년 올라갔다 내려온 산신령같은 사이버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기만하는 약장수 목회자(?)가 있다면 겸손해져야 한다. 뭔가 가슴이 찡했다면 감동중심의 신앙에 끌려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면 '1과 0처럼' 아주 간단한(simple) 하나님의 통치원리를 배워야 한다.

우리의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서의 0'과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1'로서의 하나님과 만나야 인생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이다.

우리가 배운 심진수의 사고(思考)를 컴퓨터나라의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만 적용하면 어렵지않게 이진수의 답을 찾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살면 될 것이다. 그 적용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은 '결심, 결단, 작정'과도 같은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은혜'라는 하나님의 언어로 설명되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가 가진 한계는 3일이다.(作三日). 그러므로 새해 첫 달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어인 '은혜'를 사모(慕慕)하며 한 걸음씩 내어딛는 순종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의 원리처럼 '은혜는 믿음을 믿음은 순종을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을 낳는' 새해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새해의 문을 열기를 바란다.

djlee777@gmail.com

당신 안에서 책이 나오고 있다고...

(2면에서 계속)

그들은 1-2 마일 달리기를 시도하기도 전에 마라톤을 뛰겠다는 목표를 세운 초보 주자들처럼 일을 시작한다. 글쓰기도 똑같다. 뛰기 전에 먼저 걸어야 한다.

잘 쓰려면 먼저 못 쓴 글이 쌓여야 한다. 그리고 많이 써야 한다. 훈련이 필요하다. 글쓰기의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자. 대부분의 경우에 글쓰기는 힘든 일이다. 게시물이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낙담할 수도 있다. 하

지만 기억하라. 정기적으로 글을 쓰는 요점은 청중의 반응이 아니라 훈련 내지 규율이라는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작가로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습관을 들이는가이다. 요점은 입소문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잘못된 글도 그럴 수 있음), 기술을 키우는 것이다. 이는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다. 여러 개의 작은 목표를 먼저 달성할 수 없다면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나은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노력할수록 더 나은 작가가 될 것이다.

배움을 활용하라

아무도 당신에게 글쓰기 속도를 지정할 수는 없다. 글을 빨리 쓰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누구나 항상 더 나은 사람을 찾아서 비교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글쓰기 빈도 또는 길이에 동일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작가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규격화하지 말라. 어떤 작가는 알렉산더 해밀턴("왜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글을 쓰는가?")과 같은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작해야 한두 가지를 기여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글을 씀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

기도 한다.

작가가 되기를 갈망하는가? 내 충고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관심 갖고 있는 주제에 관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읽으라. (2) 당신의 글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도 자주 쓰라. (3) 각 장의 개요와 요약, 같은 분야의 다른 책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여 완전한 제안서를 만들라. 당신이 발견한 내용이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한번 지켜보라.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글쓰기는 학습이다. 멈추면 안 된다.

by Trevin Wax, TGC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2024년 봄학기 신, 편입생 모집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목사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시험이 없고 형통한 새해를 사는 길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 교회에 한 문제가 일어났다. 타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남편을 일찍이 잃은 여인들이 자기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져 불평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행정상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기득

권을 가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니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할 교회에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으니 사도들로서는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었다. 거룩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

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행정이나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일까?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것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았다. 사도들은 그러한 일을 당하자 사도행전 6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열 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 우리는 오로지 기도 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사도들의 말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제대로 못 하니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이다. 말씀을 제쳐두고 일을 하는 것은 방향을 정하지 않고 뛰는 것과 같고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밥을 먹지 않고 일만 하

는 것이 되므로 결국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도들은 왜 그런 중요한 것을 제쳐두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게 된 것이었을까? 그 당시 교회는 엄청나게 빠르게 부흥하였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졌다. 그러니 그들 중에 혼자 자된 가난한 여인들을 가려내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이 급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에 집중하다 보니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못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므로 교회는 사람을 구제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은혜스럽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에 그런 구제의 일을 감당할 집사의 직분을 세우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며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먼저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도들은 왜 그런 중요한 것을 제쳐두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게 된 것이었을까? 이 때문이냐는 교회가 부흥할수록 교회의 모든 봉사활동은 장로들과 제직 부서에서 임명된 직분자들에게 맡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게 점점 더 기도를 만들어 기도할 기회를 찾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범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누가복음 5:15,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15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16 예수는 물러가사 한 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엄

청나게 잘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할 시간이 되자 물러오는 사람을 다 물러치고 물러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도 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다. 아무리 바쁘고 일이 잘되어도 기도만은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잘되는 일을 유지하고 더욱 잘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분들에게 언제나 기도와 예배를 강조한다. 말씀 가운데 기도 해야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잊지 말자. 2024년도에 세워 놓은 모든 계획이 형통하고 시험이 없기 위해 더욱 말씀생활과 기도생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이종원 목사
(뉴욕새사람교회)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을 말세라고 하는데 의견이 없을 줄로 압니다. 하물며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도 곧 지구가 붕괴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아주 비정상적인 일들뿐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유를 알기 어려운 생물들의 죽음이 도처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국가들이 있으며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만 봐도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정말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세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를 맞이하여 예비하신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인데 그 예로 수많은 신앙인들이 돈을 사랑하므로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 자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거의 모든 일들이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돈의 위력이 막강한 시대가 되었는데

해가고 있으며 그런 추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시간을 세상 재미에, 쾌락을 누리는 일에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점점 더 범죄의 소굴로 되어갈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쾌락에 빠져서 마약범죄와 성범죄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 요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러한 죄악에 물들지 않게 가르치며 자

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특별히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세상 사람들은 2천 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겁주려는 유언비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기 위해 길이길이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고 온 정신을 집중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아뢰 바를 올바르게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잘못 기도하고

없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힘써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 본문 8절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즉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행할 중요한 일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에 우리에 대해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보심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며, 둘째로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죄악에 빠져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어 하나님께 모르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3) 본문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우리 자신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사자인 고린도전서 12장은 9가지의 기적적인 은사와 28절에서 직분의 은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12장에서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의 은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주의 선물이므로 대단히 귀한 만큼 은사를 사용할 때 조심해서 사용하여 주의 일과 주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자세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곧 교회의 직분을 맡은 우리들을 말씀하며, 서로 봉사하라고 했으니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신실하게 교회를 세우도록 힘쓰는 직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베드로전서4:7-11

1. 먼저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1-5)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는 일명 소계시국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고통 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고통들이 말세에 우리 인생들이 영육 간에 느끼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무엇인가를 2절에서 5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들은 우리의 영육이 모두 당하게 되는 고통들이지만 특별히 영적인 고통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돈'을 사랑하므로 오는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돈의 특성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중성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한 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악한 돈이 되어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이는 돈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는 선한 돈이요, 반면에 마약같이 불의한 것에 쓰이는 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주는 악한 돈

데, 이것이 곧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둘째로 '자기를 사랑함'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이후로 자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이 죄 값을 지지 않기 위해 하와에게 돌렸으며 하와도 자신을 사랑하여 뱀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에게 사기를 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정도를 넘어서 남을 살해하는 악행이 세상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천인공로할 일은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가족 간에 살인사건들이 자주 신문이나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사건들의 이면에는 자기 사랑이라는 마귀의 속성 때문임을 깨닫고, 자기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승화시키므로 올바르게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먹고사는 일이 힘들어서 쾌락을 추구하거나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쾌락에 빠지는 일이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5일 근무 제도를 4일로 단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너들을 지켜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넷째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신앙인들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경건이 없는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 신앙은 없고 그저 신앙을 액세서리 정도로 알고 믿으며, 신앙인이라는 축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냥 적당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들은 성령의 체험이 없으며 믿음이 주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죄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결코 신앙인이자 실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마귀가 쓰이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인들은 마땅히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진을 파하는 강력한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므로 자신과 세상과 죄와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제 본문을 통하여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본문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기도에 힘쓰기를 노력하고 있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요 하나님은 세상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정신을 차려야 하고 기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습관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을 빠뜨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듯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므로 그 능력으로 매일 매일을 승리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겹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땀방울이 피 땀을 이 될 정도로 애쓰시며 힘을 다 하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 중에 땀방울이 변하여 피 땀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으시는데 불구하고 그토록 힘쓰시고 애써 기도하셨습니까.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행하시므로 본을 보여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수

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육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였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소유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가 된 우리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16:14).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들이 용을 써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역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말세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매일 우리가 보고 듣는 소식들이 얼마나 처참하며 비참한 소식들이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할 가정의 가족 간의 부끄러운 분쟁과 상상조차 힘든 혈육 간의 살인사건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있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육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였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소유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가 된 우리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16:14).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들이 용을 써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역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말세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매일 우리가 보고 듣는 소식들이 얼마나 처참하며 비참한 소식들이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할 가정의 가족 간의 부끄러운 분쟁과 상상조차 힘든 혈육 간의 살인사건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대로 계속하여 주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주님 만날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누구나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듣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종말이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실상은 언제 우리의 종말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맞이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매일 우리가 보고 듣는 소식들이 얼마나 처참하며 비참한 소식들이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할 가정의 가족 간의 부끄러운 분쟁과 상상조차 힘든 혈육 간의 살인사건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chongwee2001@yahoo.com

목회와 선교



여승운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낭비하지 않는 삶”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전파한 회개의 메시지,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병자를 고치는 사역도 모두다 예수님을 증거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포함한 기독교의 모든 사역의 결과는 예수님을 증거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던 성부 하나님은 그 목표를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기로 작정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한 예수님을 증거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목표로 하였던 위격도 예수님이었고 성령님이 목표로 하였던 위격도 예수님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이 증거 되는 이면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이 증거 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증거되고 있는 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원이 임하였을 뿐 아니라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그룹 혹은 개인들에 대해 주목을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 주여, ... 남의 인생을 살기에는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오듯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찾아올 순간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토록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마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쓰레기와도 같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주목하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저는 매 주일 저녁 7시에는 큰딸에게 TEE 제자훈련 교재와 함께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읊조리며 말씀에 대한 고백과 적용을 나누는 양육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 남길 최고의 유산 역시 예수님을 증거 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4일 주일 저녁에는 큰딸과 함께 말씀을 읊조리는 목상을 함께 하는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순간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무엇이든 관하여 주목하기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증거 하기 위한 자신의 삶에 주목함으로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살지 않고 신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경주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얀마의 익숙한 영국교회 플러스 선물인 인도 기독교

침몰 위기의 영국 교회가 이민자인 인도 기독교 공동체 성장으로 생기를 띠고 있다. 유럽 내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버풀, 런던, 프레스턴, 브리스톨 등 영국 전역에서 인도 기독교 인 수가 증가한다고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이들은 대부분 인도 내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남부 케랄라주와 타미라나드주 출신이다. 현재 인도 집권 여당인 인민당의 기독교 박해도 영국 내 인도 기독교인 성장세에 한몫한다고 전해진다.



라자 목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인도 기독교인이 영국에 유입되고 있다”고 했다. 영국 중동부 이스트햄의 남인도교회(CSI)는 인도 케랄라주에서 자주 불리는 찬송가로 예배를 시작한다. 남인도교회 프리딤 조지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참석 성도가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했다. 리버풀에 있는 야콥교회에서는 매주 케랄라 공용어인 말라얄람어로 모인다. 인도 이민자가 교회를 찾는 까닭은 교회가 이들의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영국 내 인도 교회는 이민자들에게 기본적 생필품은 물론이며 언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케랄라주 출신 성도 수리아 바르가세는 “교회는 우리 삶에서 큰 역할을 한다”며 “특히 아이들을 위해 영국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에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인도 이민자 교회의 성장세와 반대로 영국 교회는 힘을 잃고 있다. 2022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인구의 46.2%만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했다. 2011년 같은 조사에서는 59.3%로 집계됐다. 가디언은 인구 조사에 종교 문항이 도입된 이래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공립학교 4632곳이 영국국교회에 의해 운영되며 공영방송인 BBC가 여전히 종교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기독교 국가’라는 명성과 걸맞지 않은 수치다. 기독교인 비율 감소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개신교회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독일에서 사망과 자발적 이탈로 감소한 기독교인은 75만여 명이었지만 유야 세례를 포함해 증가한 성도는 16만여 명에 불과했다. 그렇기에 이민자 교회가 유럽 기독교인 감소 문제에 새로운 대안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교회가 이민자를 환대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민자의 정착 등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튀링겐주의 겨자씨신교회의 유티 파울 선교사는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에 “이민자와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유럽 교회에서 중심이 되고 있다”고 했다.

美선박 공격한 후티... '배후 의심' 이란도 군사행동

예멘의 친이란 무장반군 후티가 15일 홍해에서 미국 선박을 겨냥한 표적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예멘 본토를 공격하자 타격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미국 선박으로 설정해 보복 공격에 나선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예멘 해안에 있던 다목적 선적의 미국 회사 소유 벌크선 'M/V 지브롤더 이글호'가 후티의 지대함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



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후티는 공격 뒤 성명을 내고 “아덴만에서 다수의 미사일로 미국 선박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시오니스트 세력에 의해 끔찍한 학살을 당하고 있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 행동했다”며 “우리를 공격한 미국과 영국의 모든 선박을 표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후티 공보국의 나스레딘 아메르 부국장은 “목표를 바꿨다. 꼭 이스라엘로 향하는 배만 공격하는 건 아니다”며 “미국 선박이면 충분하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연합군은 지난 11일 후티 시설이 있는 예멘 수도 사나 등에 첫 공습을 가한 뒤 나흘간 150여발의 유도탄으로 목표물 약 60곳을 타격했다. 후티가 공습을 당하고도 공격을 지속하자 미국과 영국은 단호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뉴욕타임스는 “미군은 후티의 훨씬 더 큰 보복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확대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리시 수백 영국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내뱉은 말을 행동으로 보여줄 준비가 돼 있다”며 “그간 이뤄진 공습은 후티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응한 비례적인 타격”이라고 말했다.

후티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도 군사행동에 나섰다.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날 밤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에 있는 이슬람 정보기관 모사드의 시설과 테러단체들을 탄도미사일로 파괴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테러 공작의 가해자들, 특히 이슬람국가(IS)를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격은 최근 자국 내 폭탄테러와 미국의 후티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분석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오전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391, www.thankingchurch.org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 8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수-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평일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오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ca.org 170 Blin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 behel@kb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사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 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회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6:00(월-토)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927 / www.wmca.com /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살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66 살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st)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일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지역원 원장: 박윤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평신도 여성 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Tel: (213) 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 안락교회: 오전 9:15, 11:30 Tel: (714) 446-6202, www.grocc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강화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영인/청년): 오전 11:45 송-고교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주요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일 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 목요 3:30(화) 배움동행: 오전 10:30 목요 기도회: 오전 9:00 TEE-성경강화회는: 오후 7:30(금)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83. 김봉서

김봉서는 1867년 2월 9일에 한국 평안남도(?) 중에서 태어났다. 그는 1876년 9월 17일에 평양에서 태어난 전민리와 결혼하였다. 그의 부인의 이름 민리가 영어로 메리시므로 이는 세례 받을 때 받은 세례명으로 보여 그녀가 기독교이었음이 틀림없다. 결혼 후 그는 풀노리에서 농사하였다 하는데 강원도 강릉 인근 풀노리로 보인다.



히로 한인감리교회 헌당식 (1930년)

37세가 되던 1904년 9월에 김봉서는 하와이 노동 이민 기선을 타고 29세의 아내와 4살과 1살 된 두 딸과 함께 그달 3일에 출항하여 그달 16일에 하와이 호항에 도착했다. 1920년 인구조사에서 그가 1903년에 이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기로 보인다. 그는 영어 이름을 Poong Soh Kim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하와이로 이주하여 김봉서로 개명하고 영어이름을 Bong Sur Kim으로 한 것 같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김봉서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였다.

로 파송을 받았다. 그해 3월에 유아세례교인이 17명,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한 교인이 75명, 세례 교인은 66명, 학습교인은 85명이었는데 이중 그해에 학습교인이 된 자가 28명이었다. 그리고 히로 지역에 교회학교가 두 곳에 있었고, 9명의 교사와 직원이 수고하였으며 등록한 학생은 118명이었으나 평균 78명이 참석하였다. 이로써 당시 교회 사정을 감안한다면 히로 교회가 비교적 큰 교회로 보인다.

하와이로 온 지 10년이 되던 1914년에 김봉서는 하와이섬 파팔로아에서 거주했다. 그해 6월에 하와이섬 파팔로아에 있는 한흥 학교에서 여름 방학 예식이 거행되었다. 어린 학도들의 유쾌한 노래로서 일반 청중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자못 비상한 성황을 이루었다. 그날 새 학년도부터 시무할 임무를 선정하였을 때 김봉서는 교장으로 선임되었다. 그 외 임원으로는 교육부장이 서광석, 총무에 오창익, 서기에 김정구 그리고 재무에 박래형이 있었다.

이듬해 3월 20일에 계약회가 있었다. 그날 오후 6시에 하와이 선교연회 감리사 푸라이 박사와 선교 총무 폴스테드 박사를 위하여 히로 교회는 경채류에서 40여 남녀 교인이 모인 가운데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고, 그날 7시 반에 폴스테드 박사가 설교한 후 이어서 성만찬 예식이 있었으며, 그날 8시 반에 계약회가 있었다. 참석한 사람은 이관목 목사, 심상헌 전도사, 김봉서 전도사, 변응환 권사, 김창운 권사, 함마구레 주일학교교장 등이었다. 그달에 유아세례 교인이 19명,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한 교인이 78명이었으며, 세례교인이 70명이었고, 학습교인은 78명이었고, 그해 학습을 받은 교인은 39명이었다. 작년과 비교할 때 유아세례 교인은 2명이 증가했고,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한 교인은 3명이 증가했지만, 세례 교인은 4명이 줄었으며, 학습교인은 7명이 줄었고, 그해 학습을 받은 교인도 11명이나 줄었다.

1920년에 김봉서는 하와이섬 히로의 북쪽 지역인 노스 힐로에 있는 사탕수수밭에서 노동했다. 그해 아내와 함께 세 자녀가 함께 거주하였는데 그들은 두 아들, 1909년에 태어난 존과 1912년에 태어난 베드로 그리고 1917년에 태어난 딸 세라였다. 그가 하와이로 이주할 때 동행한 두 딸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는지 그해 인구조사에 없었다.

우사였던 안성태의 재정 보고에 따르면 이월금이 11달러 95센트, 수입금이 343달러 85센트, 지출금이 316달러 1센트여서 잔금이 39달러 90센트였다. 지출 내역으로는 자금 80달러, 전기세 8달러 50센트, 전화세 15달러, 은퇴 목사 보

조 13달러, 연회 연조 150달러, 잡비 6달러였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27달러, 청년회에 18달러 20센트를 지출했다.

그해 이관목이 히로 한인감리교회 목사로 파송되었고, 본 교회에 전도사로 파송을 받은 자는 이정두와 심상헌이었는데 김봉서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1930년 2월 하와이 선교 연회록에 3명의 전도사가 파송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김봉서가 전도사로 파송된 것으로 보인다.

그해 9월에 시작하는 가을 학기부터 공립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 한인 교사가 하와이에 강역각 등 12명이었는데 그중에 부인 김민희가 히로 소학교의 교사로 부임하여 히로 한인 사회에 큰 기쁨이었다. 다른 한편 그달에 북과 나와 서부 하와이섬 일대에서 화산이 폭발한 결과로 히로에서 미진이 계속되어 크게 걱정하였다.

1930년 2월에 보고된 바로는 유아세례교인이 14명,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한 교인이 90명이었으며, 학습교인은 94명이었는데 그해 학습을 받은 교인은 31명이었고, 세례교인은 76명이었다. 주일학교는 두 곳에 있었는데 교사와 직원이 9명이었고, 등록한 학생이 131명이었지만 평균 출석은 90명이었다. 그해 주일학교를 위하여 45달러가 지출되었고, 고등부 옆윗 청년회에 고등부 옆윗 청년부의 1/3에 해당하는 7달러를 지원했다.

1931년에도 김봉서는 심상헌과 김묘연과 김CW 그리고 이EM과 함께 히로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해에는 예배당을 헌당하여서인지 예년과 달리 5명의 전도사가 히로 교회에 파송이 되었다. 그런데 1년 후의 하와이 선교연회록에는 3명의 전도사가 파송된 것으로 나온다. 이관목 목사는 작년과 같이 파파할나, 호뉴가이지, 히로 그리고 코나에 있던 네 한인감리교회를 담당하였으므로 네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순회 방문한다고 치면 한 달에 세 주일은 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해야 하고, 그 외 목회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932년 2월의 하와이 선교연회록에 게재된 보고에는 유아세례교인과 그해 학습을 받은 교인만 소개되고 있다. 그 보고에 따르면 유아세례교인이 22명, 그해 학습을 받은 교인이 32명이었다. 그달에 백인 교회 1, 필리핀 교회 12개, 일본인 교회 14개, 한인 교회 12개가 있어 총 39개 교회에 유아세례 교인이 총 396명이었으므로 히로 교회 유아세례 교인은 6%에 해당했고, 그해 학습을 받은 교인은 697명이었으므로 히로 교회 학습 받은 교인은 5%에 해당했다. 1932년에도 김봉서는 다른 2명의 전도사와 함께 히로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 받았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1933년의 하와이 선교연회록에 통계가 없어 교회 현황을 알 수 없다.

1933년 3월에 모인 하와이 선교연회는 이관목 목사를 예년과 같이 하와이섬에 거주하던 한인인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심상헌 전도사와 김묘연 전도사와 함께 김봉서도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해 5월 7일에 감리사 프라이 박사가 히로에 도착하여 저녁 7시 반에 설교하고 이어서 계약회를 열었다. 참석한 직원은 김봉서 전도사를 비롯하여 이관목 목사, 심상헌 전도사, 김묘연 전도사, 김창운 권사, 김순복 주일학교



교장대리, 김세라 청년회장, 피홍선 유사, 이정근 유사, 전익서 탁사, 고성화 탁사, 김원섭 탁사, 오영식 탁사, 안선도 속장, 김베르도 속장이 참석했다. 유사의 보고에 따르면 수입금이 308달러 77센트, 지출금이 301달러 71센트, 잔금이 7달러 66센트였다. 1934년 하와이 연회에 보고된 바 히로 한인감리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7명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학습 교인은 71명이었으며, 그해 학습을 받은 교인은 20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70명이었다.

1934년 하와이 연회는 예년과 같이 이관목 목사를 하와이섬의 네 곳에 거주하는 한인인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로 파송했고, 김봉서도 다른 2명과 함께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관목 목사가 15차로 파송을 받았으므로 히로 한인감리교회는 그해 2월 25일 주일 아침 예배를 제15차 파송 환영회로 모였다. 교회와 부인회가 주최하였고, 김봉서 전도사가 사회를 본 가운데 이 목사 내외에게 화환을 걸어 환영하였고, 김 전도사는 환영사를 담당하였으며, 이 목사는 감사하다는 답사로 김 전도사의 환영사에 응했다.

1935년 하와이 연회는 이관목 목사를 하와이섬 한인인 상대로 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는데 예배드리는 지역이 여섯 곳이나 되었다. 그해 3명의 전도사가 파송을 받았으므로 김봉서가 히로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승만이 그해 3월에 호환선교기념관에서 300여명 청년이 동지회 주최로 모여 이동빈의 사회하에 특별강연회가 있었다. 그해 11월 2일에 김봉서의 장자 요한 군과 호환 최두옥 씨의 장녀 메리는 양과의 결혼식이 호환 한인감리교회에서 거행되었다. 본 교회 담임 목사인 임두화의 주례로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들의 결혼은 양가와 히로 한인 교회에 큰 기쁨이 되었다.

히로 한인감리교회에 국어학교가 있었다. 감리사 프라이 박사는 국어 교육을 인정했으나 소극적이었다. 교실과 교사 월급은 교회가 일정량 담당하였고, 교사의 자격을 갖춘 선생은 거의 없어 열악했다. 히로에서는 다행히 이관목 목사가 국어학교에서 가르쳐 교사질로서는 최상이었다. 그런데 그의 교수 방식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김봉서 전도사를 비롯하여 황인환, 이병운, 백만금 등이었다.

김봉서는 1954년 8월 18일에 향년 87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남편의 성을 따그의 아내 김메리라는 이듬해 12월 18일에 향년 79세로 남편을 따라 나셨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 821-1112, estroso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태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820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0288,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백성중</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1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8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p>	<p>보스톤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 오후 8:00 영지, 유년, 종교대학: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6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센터빌 한인장로교회(PCA)</p> <p>담임목사: 차용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p> <p>Tel: (703) 579-7576, www.koreanccc.org 25454 Gum Spring Road, VA 20152</p>	<p>일칸사 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9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교회</p> <p>담임목사: 함성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Green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정승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945-1512, Fax: (215) 942-9037 706 Wilmer Rd. Horseshoe,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만</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전례: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6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941-4447, www.mccc.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536-6675, www.laccn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제 8장 영적인 선물로서의 외적인 기도에 대한 설명과 방어 (2)

2. 영적인 은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음

1) 다른 은사나 은혜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행해지는 은사가 있다. 기적이거나 치유나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2) 다른 은사나 은혜가 없으면 받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은사가 있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 '말로 표현하는 은사'는 지혜나 지식에 의존한다. 그러나 지혜나 지식이 없이 말로 표현하거나 이런 표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 뿐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을 만큼 대담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기도의 은사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의 저자가 아니라,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총체적인 저자이시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적절한 말로 우리 마음의 열망들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기도를 부탁 받았을 때, 우리의 필요와 형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말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에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가 요구되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역사함으로써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곧 그가 표현하게끔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표현하지 않도록 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답답하지만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침묵으로 괴로워하던 다윗과 비슷한 상황이다. 다윗은 성령의 도우심 후에야 비로소 기도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 '기도의 은혜'(the grace of prayer)와 '기도의 은사(the gift of prayer)'를 구분하지 않으면 건전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첫째 주장은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은사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며, 둘째 주장은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말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은혜나 혹은 기도를 통해 구원받는 은혜를 가져올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진리와 우리의 경험에 위배되는 것이다.

* 대답:

1) 첫 번째 주장은 사실이지만, 제한을 가지고 있다.

(1) 첫째로, 우리는 기도의 은혜를 습관이나 원리로 이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습관이나 원리의 측면에서 기도의 은혜는 거룩해진 모든 사람, 심지어 모태에서부터 거룩한 어린아이들에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은혜롭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열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2) 둘째로, 그런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자신이 받은 능력을 사용해서 이 은사를 더욱 불러 일으켜야 한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 잊히게 하라"(딤후 1:6)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이 의무를 게을리 하는 사람은 성령 '기도의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서원을 기도를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은사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형식적인 기도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다.

(3) 셋째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이나 조건, 의무나, 부르신 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다시 정리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기도 그 자체가 신성도움이 되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도움을 향상시키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가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그것들이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 자비를 구하거나 자신의 인격의 성화를 위해 은혜를 공급해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받아들이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둘째 주장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의 영의 은혜로운 도우심과 분리될 수 없다면,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결론에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1) 첫째로, 그런 결론은 결코 나올 수 없다. 즉,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은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된 것이다. 은사는 은혜를 위해 있지만, 그 반대는 있을 수 없다. 은혜는 은사 없이 행해질 수 있지만, 은사는 은혜 없이 행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2) 둘째로, 이 은사가 다른 모양에서 자라지만,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은사는 분리될 수 없는 간구의 영으로서 성령의 사역 중 구분된 하나의 사역이다. 은혜와 간구의 영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조명하심을 통해 말로써 기도하는 은사가 흘러나오도록 한다. 그러나 영적인 조명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기도의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우리는 이런 광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younsuklee@hotmail.com



이영숙 박사의 성품치유 여명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문, 감사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새롭게 변해갑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가 없으면 새로운 시작도 없습니다. 좋은 성품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감사에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막혔던 담과 관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디모데전서 4:4)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느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바꾸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하십니다.

미워져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떠오릅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이 힘이 됩니까? 지금 나를 압박해 오는 모든 상황, 물질적 어려움, 인간관계,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수 많은 일들을 때로는 과감히 끊어 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 시작하면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부터는 아무 것도 버릴 것이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모여서 나의 성품을 다스리게 하고, 훈련하는 재료가 됩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감사 어떻게 가르칠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느끼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행동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취하는 또 다른 의지의 결단입니다. 수많은 환경 속에서 감사를 택할 것인가, 불평을 택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선택하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감사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감사로 표현할 것인가, 짜증과 낙심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울리지 않는 좋은 종이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 표현하지 않는 감사도 감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고맙다고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로 느끼고 있다면 느낀 것을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좋은나무성품학교의 '감사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할 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네가 곁에 있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힘들 때, 네가 지켜봐 주고 격려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감사의 법칙을 적용해서 감사했다는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요청하며 마음을 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베푼 선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아주 평범한 일상이 되지만 서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문입니다.

* 좋은성품 부모교육, 좋은성품 자녀 세우기, 좋은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좋아성(BSE)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시니어 목회, GTMU(www.good-treemission.org) 캘리포니아 ECE(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전문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 goodtreeusa@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필자 소개
이영숙 박사. 최초로 '성품'이라는 단어를 교육에 적용하여 2005년부터 태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부모,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품교육으로 평생교육을 구축한 '12성품교육'(제C-2014-008458호, Registration NO.TX 8-721-576)의 창시자이다. 이영숙 박사가 고안한 성품교육은 한국과 미국 특허 및 저작권으로 인성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저의 책으로는 '좋은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Character Innovation(성품이노베이션 영문판)', '성품대화법', '성품준계법', '여성을 위한 성품리더십', '12성품론' 등이 있다. 이영숙 박사는 세상의 문화 속에 '좋은 성품'이라는 귀한 가치를 탁월한 교육으로 풀어내어 다음 세대에 전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Toronto.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후회함이 없는 인생설계”

소중한 새해를 우리는 허락 받았습니...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절감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은혜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나의 어리석은 생각들과 행위들이 나의 길을 덜 성공적이게 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뒤늦은 강한 후회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지 못하였을까? 왜 그때에 덜 중요한 것들에 집중을 하였을까? 너무나 많은 후회스런 일들이 떠오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터라도 목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 후회 할일이 없도록 살아가야지'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설계> 라는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새해엔 우리 모두 후회 할 일이 없도록 잘 살아가는 인생 설

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한해를 다 살고 난 후에 후회 합니다. 젊음의 시간을 다 허비 한 후에 후회 합니다. 사람들과 헤어지고 사별 한 후에 후회합니다. 혹은 가진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후에 후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다 보낸 후에 후회 합니다. 저는 창세기 1:1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창1:1) 하나님의 창조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멋진 인생 사역 설계도의 원리를 발견 할 수 있었습니

다. 이 없애지리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사물을 향하여 축복하셨습니다. 남을 원망 하거나 저주 하면서 살아가면 후회 할 일들이 많아 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처럼 주님의 환경과 존재 하는 것들과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면 후회 할 일들이 없어지거나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단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창2:2)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의 날을 잘 지켜 섬김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충성 봉사하여야 후회 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후회함이 없게 살려고 하면 주일 성수를 상형적으로 재해석을 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의 가르침을 따라 안식하고 거룩하고 성별되게 지켜 하나님이 복 주신 그날을 복되게 지켜 섬겨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 사회도 후회 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창2:3) 우리 모두 허락 받은 이 소중한 새해를 후회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축복 합니다. cyd777@hotmail.com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설명회

24일(수) 오전 11시 스마트 강의실, 줌으로도 가능



월드미션대

월드미션대학교와 DSLIM Foundation(디에스립 파운데이션)은 1월 24일(수) 오전 11시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가 건강한 가정의 주체로 기능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이날 프로그

램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의 승혜경 교수가 '장애인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란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펼치며, 사회복지학과 이현아 교수가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가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설명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설명회는 1월 24일(수)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교 5층 스마트 강의실에서 개최되며, 온라인 zoom (ID 2133881000)으로도 참석이 가능하다. DSLIM Foundation(디에스립 파운데이션)은 월드미션대학교를 설립한 고 임동선 목사님의 꿈과 사역을 이어받

아 실현하고자 세워진 재단으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조직의 지도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지적, 신체적,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남가주장로성기단 30대 단장 한경환 장로가 장로성기단기를 흔들고 있다

남가주장로성기단 30대 단장 이취임식 거행

남가주장로성기단은 지난 1월 18일 남가주장로성기단은 신년예배후 30대 단장 이취임식을 많은 은퇴장로님들과 단원들의 참석속에 나성영교회 친교실에서 거행했다. 이날 한

사전 접수는 https://forms.gle/74dvcoV4EaS66JV47로 할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213-388-1000 (이현아 교수, hyunalee@wmu.edu)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 신년예배

오는 10월 한국성지순례 계획, 선착순 42명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회장 이은철 목사 이하 원목회) 신년 월례회가 지난8일(월) 오전 11시 LA 북부 터헝가에 있는 하나교회(담임 강성도 목사)에서 열렸다. 이은철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송성엽 목사(원목회 서기) 기도, 박우성 목사가 지휘하는 찬양대(반주 김은영 사모)의 찬양후 임찬순 목사(텍사스 알린턴 UMC 담임)가 '엠마오의 길, 고향가는 길(누가 24:13-35)'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예배는 김동형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 강연회로 이어졌다. 한편 2월 정기 모임은 2월 12일(월) 오전 11시 시온 연합감리교회(오경환 목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원목회는 금년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6일 동안 한국 성지순례를 실시할 계획으로 참석인원은 선착순 42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원목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은철 목사, 부회장: 정진관 목사, 총무: 이재형 목사, 서기: 송성엽 목사, 회계: 김민희 목사 (기사제공 원목회)



원목회원들이 예배후 단체사진을 찍고있다(사진=송성엽 목사)

BBC, 북한, 한국 드라마...

(1면에서 계속)

'씩어빠진 괴뢰문화'...내부의 적을 찾아라?

영상 속 북한 아나운서의 설명은 적나라했다. "지금 씹어빠진 괴뢰문화는 학생소년들에게까지 전파되어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반동사상문화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전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는 괴뢰문화물을 시청·유포시키다가 단속된 동대문구역 삼마고급중학교 학생들이었던 리00과 문00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습니다. 공개재판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간에 수십 종의 괴뢰영화와 괴뢰TV극, 20국의 괴뢰화면곡을 시청유포한 리00과 문00에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습니다. 리00과 문00은 이제 겨우 16살 밖에 안되는 미성년입니다. 인생의 초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문화에 유혹돼서 분별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화면은 이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여성, 갈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여성을 차례로 비추며 이름과 주소 등을 공개했다. 또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대놓고 비난했다. "대성구역 통북동 41인민반에 살고 있는 최00입니다. 장판지가 행하게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끝신을 신은 채로 거리에 나선 차림새도 문제이지만

자기의 이색적인 옷차림을 두고 수치를 전혀 느끼지 않는 그의 정신상태는 더 한심합니다." (최00) 차 타고, 여기 택시 타고 나왔습니다. 걸어나오지 않았습니. 이케 하고 나오면 안 됩니까?", "최00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기는 고사하고 단속성원들에게 가박을 붙이다 못해 나중에는 서성구역 하심동 61분반 2층 1호에 살고 있는 리금주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논리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씩어빠진 괴뢰문화 오염자들'이다.

탈북민 최초로 일본 동경대 박사 학위를 받은 최경희 샌드 연구소 대표는 BBC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스스로 핵 보유 지위국이라 주장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등 외부의 적을 내부의 적, 즉 한국 문화를 유포하는 반동분자에게로 돌릴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핵을 보유해 무서울 것이 없는 북한이 여전히 못살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유가 미국 때문이라고 주민들에게 세뇌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에서 남조선은 곧 반동"이라며 "이는 김정은 혈통만 믿고 바라보는 유일사상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한국 드라마와 노래 등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북한의 유일사상체계를 와해시키는 반동사상이라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이 동

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이 곧 체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자산 현장에만 모습을 드러내던 김주애가 새해 첫 날 남궁장을 방문하는 등 인민 생활에까지 관여하는 모양새를 보였다"며 "북한이 김정은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민들의 한국 사회 동경을 더욱 더 차단하고 중심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드라마는 힘든 현실 잊는 '마약'

지난 2000년대 초, 한국 정부의 대북 햇볕 정책이 이어지면 서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가 북한에 대거 유입됐다.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을 해온 한 평양 출신 탈북민은 "당시 많은 주민이 드라마 덕분에 남조선이 잘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자신도 평양에서 드라마 '가을동화'를 즐겨 봤고 지인이 피아노로 연주하는 한국 드라마 주제곡을 함께 흥얼거렸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북한은 한국 문화가 퍼지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이렇게까지 유행할 거라 예상도 못한 것 같다"라면서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가장 큰 적은 한국이고, 북한 당국은 잘 사는 남조선을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드라마를 보다 걸리면 뇌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면 총살 당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드라마는 힘든 현실을

잊게 하는 '마약'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북한 주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북한인권단체 국민통일방송과 데일리NK가 북한 주민 50명을 전화로 인터뷰해 발표한 내용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외국 영상을 보느냐는 질문에 50명 중 49명(98%)이 '한국 드라마·영화'라고 했다. 이어 중국 드라마·영화, 한국 공연, 한국 다큐멘터리, 미국 등 서방 드라마·영화(복수응답) 등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국이나 다른 해외 영상 콘텐츠를 본 뒤 달라진 점'으로는 10명 중 8명이 '한국 사회에 호기심이 생겼다'고 답했으며 '한국식 말투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 옷 스타일을 따라 했다'고도 밝혔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8조 '적대국 사상 문화 전파죄'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중간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국을 통해 더 많은 한류가 퍼지자, 북한 당국은 부랴부랴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8월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1월 평양문화보호법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공개 당시 북한은 그 도입 이유로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 및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 정신,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한국에 정착한 20대 탈북민 김소영 씨(가명)는 "북한에서 남조선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산다고 배우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니까 북한 당국이 그런 부분을 경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 역시 북한에서 '천국의 계단' 등 한국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지만 처벌 때문에 내놓고 볼 수는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젊은 장마당 세대에게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다.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 보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북한 정권을 향해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권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수면 아래 백조의 다리와 같다. 가라앉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관계자 3명은 지난 2021년 8월 북한에 관련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주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사형 역시 의도적인 살인 등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서한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들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처형한 인원을 공개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인권 탄압"이라며 북한과 김정은에게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2014년 유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평양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만큼 북한이 인권 지적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걸로로는 개의치 않는다고 하지만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김정은 정권에게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는 쉽게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COI 보고서 채택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희 대표 역시 "이 영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강도 높은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소년들의 얼굴과 이름, 신상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by BBC Korea

동부교계 기사관

뉴욕교협청소년센터, 청소년 농구대회 개최

뉴욕교협청소년센터는 1월 27일(토) 오전 8:30 뉴옥센트럴교회에서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학생들의 건전한 경쟁과 친목 도모, 팀워크를 통한 관계 발전 및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 문의: (718) 279-1313

최귀석 목사 무료 세미나, 심리치유상담/심리전도정착

뉴욕목사회, 뉴욕교회협의회, 미주여교역자연합회 주최로 (사)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 최귀석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2월 15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뉴욕만나교회(시무 정관호 목사)에서 심리치유상담, 심리전도정착 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김경열 목사 917-963-9356

뉴욕장로교회, 누구나 선교특강 세미나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2월 10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박필훈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누구나 선교특강 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718-706-0100, newyorknypc@gmail.com

2024 필그림선교교회 섬머캠프 모집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여름기간 동안 아이들의 영적, 교육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2024년 섬머바이블캠프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등록: 1월 15일(수)부터 시작PSBC 대상: Kinder-5th grader (수학과 영어, 예배와 다양한 Activity)PSBC+ 대상: 6th-8th grader (수학과 영어(Reading, Writing), SSAT, ISEE, Musical, Art)

▲ 문의: 필그림선교교회 201-461-1225, http://www.njpmc.org

뉴저지한인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뉴저지한인교협(회장 김동권 목사)은 1월 28일(주일) 오후 5시 한무리교회(시무 박상돈 목사)에서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연다. 저녁만찬과 경품추첨이 있다.

▲ 문의: 총무 이준규 목사 917-348-4456



뉴욕지구한인목사회, 2024 신년하례 및 기도회 사진

뉴욕지구한인목사회, 2024 신년하례 및 기도회 그래도 포기할수 없는 이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뉴욕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1월 9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시무 정관호 목사)에서 2024년 신년하례 및 기도회를 열었다.

한필상 목사(총무)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경배와찬양 이상훈 목사(음악분과), 기도 정상철 목사(협동총무), 설교 김경길 목사(서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규섭 목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 20:11-18)' 제목을 통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잡히신 순간부터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함께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님은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셨다. 우리의 목회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은 '너 나 사랑하느냐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고 믿음도 살아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심기도는 △희원 목사님들의 영적회복과 부흥, 그리고 사모님들과 가정의 성령충만을 위하여 (부총무 하정민

목사) △목사회 회원들의 연합과 모든 1년 사역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협동총무 박준열 목사) △미국과 한국의 안정과 대통령 및 지도자들을 위하여 (선교특별 김경열 목사) △뉴욕교계와 교민들을 위하여 (세미나특별 박현영 목사) △다음 세대와 청소년을 위한 기도 (청소년 최호섭 목사)의 제목으로 인도 했으며 참석자들은 통성으로 기도했다. 마지막 순서로 선배목사님과 후배목사님들이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진 후 정관호 목사의 마무리 기도도 마쳤다.

뉴욕목사회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점들과 현안을 토론하고 한인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자 '교계지도자 토론회'를 1월 29일(월) 후러시제일교회에서 개최한다.

토론회 주제는 △'뉴욕 교계는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문제를 교계가 연합하여 대처해야 할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2세 청소년 문제와 현실 그리고 미래의 대안은 무엇인가'이다.

(홍현숙 기자)

KAPC 뉴욕노회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꽃대를 향하여 전진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KAPC) 뉴욕노회(노회장 임병순 목사)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가 1월 15일(월) 오전 11시 뉴욕새사람교회(시무 이종원 목사)에서 열렸다.

임병순 목사는 "지난 47회 총회를 합심하여 잘 준비해 노회들의 귀감이 되었고 노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모았다. 총회와 노회를 순종하고 참여하고 기도드림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규본 목사는 '꽃대를 향하여 (빌 3:7-16)' 제목을 통하여 "바울이 꽃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것"이라며 "바울처럼 하나님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본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포기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꽃대를 향해 달려 나가 새롭게 출발하는 은

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시찰별 정기예배 목사(뉴욕동시찰), 황경일 목사(뉴욕서시찰), 이종원 목사(뉴욕시찰) 그리고 총회장 김성국 목사가 새해인사를 전했다.

총회장 김성국 목사는 "뉴욕노회는 저의 울타리이고 디딤목이라며 총회장으로 세우는 과정에 함께하셨던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 그 기도들, 그 모든 과정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의 중요성은 성경적인 행정, 이단과 거짓 등에 대한 방어 그리고 전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거룩한 싸움에서 우리 총회가 물러서지 말아야 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건 시대적 사명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이루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식사기도는 이영상 목사가 했다. 식사 후 4팀으로 나누어 웃놀이하며 친교를 도모했다.

(홍현숙 기자)



KAPC 뉴욕노회 2024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 사진



KAPC 뉴욕서노회 신년하례식 사진

KAPC 뉴욕서노회 신년하례식

"어떠하든지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삶 출발"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박종욱 목사)는 1월 11일(목) 오후 5시 천성장로교회(신두현 목사 시무)에서 2024 신년하례식을 열었다.

박종욱 목사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기도 임동열 목사, 설교 이승원 목사, 축도 강기봉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원 목사는 '아브라함의 새 출발 (창 12:1-9)'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인생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했다. 우리의

삶도 나이가 어떠한, 형편이 어떠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전파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고 그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고, 성결하고 건전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자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천국 하늘의 도성을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식사 후 이종태 목사 사회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홍현숙 기자)

제64주년 뉴욕한인의 밤 및 제121주년 미주한인의 날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고 그 발자취를 기억하자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는 1월 13일(토) 뉴욕 맨해튼 지그펠드 볼룸에서 '제64주년 뉴욕한인의 밤 및 제121주년 미주한인의 날' 행사를 커뮤니티 리더와 주요 정치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인사회가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고 그 발자취를 기억해 이를 바탕으로 더욱 더 큰 도약과 성장, 발전을 하자는 의미를 담아 한인사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미주한인이민역사를 되짚는 영상 상영을 통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시작된 미주한인 이민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처 알지 못했던 지난 시간 선조들의 노력과 헌신의 시간

을 기렸다. 김의환 뉴욕총영사와 박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전했고, 한창연 역대회장단협의회 의장과 28대 김기철 회장, 36, 37대 찰스 윤 회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뉴욕한인회과 한인사회 번영을 기원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비롯해, 앤디 김, 그레이스 팜 연방하원의원, 주마니 월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마크레빈 맨해튼 보로장, 린다 이,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참석해 지난 시간 뉴욕한인회의 활동과 업적을 재조명하고, 한인 이민 121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웨체스터교협 2024 신년하례식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웨체스터한인교회협의회 2024 신년하례식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웨체스터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임일송 목사)는 신년하례식을 1월 14일(주일) 오후 5시에 뉴욕백민교회(담임 임일송 목사)에서 열었다. 뉴욕시 북부에 위치한 웨체스터는 뉴욕에서 지역교회 연합의 모범 지역이다.

1부 예배는 사회 전구 목사(웨체스터연합교회), 기도 최기

성 목사(답스페리한인교회), 설교 임일송 목사(뉴욕백민교회), 봉헌기도 송인규 목사(뉴욕한인제일교회), 축도 김홍선 목사(새은혜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교협회장 임일송 목사는 베드로전서 5:12 말씀을 본문으로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신년에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속에 거하

는 교회, 가정, 목회자들이 다 되라"고 부탁했다.

2부 친교는 웃놀이하는 노기송 목사(뉴욕새예루살렘교회), 게임은 김홍선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또 가정별 준비된 선물을 나누었다.

지난 12월 정기총회로 출범한 27기 웨체스터교협은 회장

임일송 목사, 총무 전구 목사, 서기 송인규 목사 등 조직을 구성하고, 교협의 신년사업을 발표했다.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연합부흥회, 목회자 세미나 및 수련회(봄과 가을) 등이다.

(정리: 김재상 기자)



신년하례예배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임시노회 및 2024 신년하례예배

해외한인장로회 장로부총회장 후보로 한성수 장로 추천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는 1월 14일(주일) 오후 6시 30분에 뉴욕넘치는교회(담임 주영광 목사)에서 임시노회 및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노회장 김일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임시노회에서, 뉴욕노회는 해외한인장로회 장로부총회장 후보로 한성수 장로(넘치는교회)를 추천하기로 했다.

부노회장 김연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서기 노성보 목사가 기도와 광고를 했다. 노회장 김일국 목사는 "여호와를 찾았을 때(후세아 10:12)"를 주제로 "신앙의 비밀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역사 속에 있다. 주님이 내안에 오시면 그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며 "2024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 계시와 응답이 있어 풍성한 한해가 되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준형 목사의 폐회기도로 임시노회를 마쳤다.

이어 진행된 신년하례예배는 인도 회록서기 조경윤 목사, 기도 부노회장 김용호 장로, 설교 은퇴목사 김석충 목사, 축도 전노회장 박맹준 목사, 광고 서기 노성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석충 목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마가복음 2:21-22)"를 제목으로 전한 설교를 통해 사랑의 선순환이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한인의 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아주사퍼시픽신학교...설교세미나

“설교본문에 충실하려면 콘텐츠 저자의 의도 파악해야”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아담 모리스 박사) 한인신학석사 프로그램(디렉터 변명혜 박사)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라는 주제로 설교세미나를 11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신성욱 교수(아신대 설교학 교수,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부회장),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했으며 이날 참석자 청중들 역시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강의에 임했다. ‘엔데믹 시대 설교의 전략(I)’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신성욱 교수는 “코로나가 타지면서 교회에 위기가 왔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현장 예배에 대한 불편함이 생겼다”며 “교회에서 위기관리는 예배와 설교를 들 수 있다. 예배는 다양성 및 변화를 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설교가 되려면 예배순서의 변화 등을 통해 다양성원리를 추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는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용주의, 감성주의,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문화에 영향

을 받고 있는 청중들에 대해 효과적인 설교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효과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해야 하며 이는 강해설교”라고 말하고 “본문에 충실하려면 콘텐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것을 그냥 전달하기보다 예화를 사용해야 한다.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하셨다. 본문의 핵심메시지를 오를 청중들에게 맞게 예화와 예화를 활용해야 한다. 적절한 프레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3대지 설교를 한다. 하지만 성경에 3대지 설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다. 3대지 설교의 단점 중 하나는 예배가 마친 후 청중들이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교자도 기억 못할 때가 있다. 따라서 설교는 원포인트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두번째 강의는 ‘나는 생각하는 설교자이고 싶다’라는 주제로 권혁빈 목사가 강의했으며 김한요 목사가 ‘설교, 역동적 복음의 선포’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강의를, 그리고 신성욱 교수가 ‘엔데믹 시대 설교의 전략(II)’라는 주제로 네 번째 강의를 했다. 이어 Q&A 시간을 가진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밀알장애인장학수여식에 참석한 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24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주최한 2024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15일(월)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렸다. 장학위원장 이종희 장로는 “많은 기업체들과 많은 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셔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2001년에 시작하여 24년째 장학금수여식을 하게 되었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장학금수여식은 미주장애인장학생 9명(장학금 각 \$3,600)과 근로복지생 3명(장학금 각 \$3,600), 꿈나무장학생 13명(장학금 각 \$1,000), James

Worldwide 장학생 10명(장학금 각 \$1,000), Moon Foundation 장학생 10명(장학금 각 \$1,000),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장학금 각 \$2,000), 제 3국 및 중남미 장학생(C 국,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과테말라, 볼리비아, 멕시코) 30명(장학금 각 \$1,000),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10명(장학금 각 \$1,000) 등 총 105명에게 \$136,200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이로써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이 처음 출범한 2001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총 지급액은 \$3,012,400에 이른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의날 선포식에서 미미송 공동대회장이 선포문을 소개하고 있다

제21주년 미주한인의날 선포 축하식

“세계를 이끄는 한민족으로 계속 발전해야”

미주한인재단LA(회장 이병만 장로)는 제21주년 미주한인의날 선포 축하식을 13일(토) 오후 3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개최했다. 유화진 씨와 가브리엘 아벨라 씨 사회로 열린 축하행사는 김일권 박사(미주한인의날 대회장)가 인사말을 전했다. 김 박사는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가 121년을 맞이했으며 오늘 121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우리 조국의 국력이 기울어져 위기에 처했을 때 102명의 한인들이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서 미주 이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지금은 그 수가 260만명으로 증가하여 미주 한인들은 미국에서 특히 다민족들 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동맹 70년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큰 버팀목이 되었으며 미주 한인의 날은 이러한 우리 한인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함께 모여 미국에 감사하는 날”이라며 “우리는 세계 속의 한민족, 세계를

이끄는 한민족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례, 이병만 회장 환영사, 피오나 마 캘리포니아 재무장관, 영 김, 주디 추 연방하원의원, 김영안 LA총영사 축사로 이어졌으며 결의문 전달 및 인사 시간을 가졌는데 데이빗 민가주상원의원, 존 리 LA 시의원 등이 선포문을 낭독한 뒤 대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어 다민족 축하 공연과 중국, 베트남, 일본, 방글라데시 등 7개 커뮤니티 대표들과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내용의 상호 협의각서(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축하식 전에 열린 감사예배는 김영구 목사(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대표) 사회로 시작, 박성근 목사가 기도, 이강평 목사가 ‘말씀을 따라 떠나 분리되었더라(히 12:1-4)’의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최왕성 전도사 특송,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장소를 가든스위호텔로 옮겨 축하 디너 만찬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OC교협 33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왼쪽아래 타원안은 이날 회장으로 취임한 박재만 목사가 직전회장 심상은 목사에게 교협기를 전달받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서부교계 게시판

OC장로협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예배.

오렌지카운티 장로협의회 제10대 회장 배기호 신임회장과 김영수 이사장의 취임예배가 21일(주일) 오후 4시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562)900-0040

은혜한인교회 2024 신년축복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2024 신년축복성회가 ‘축복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라(고후 9:8)’라는 주제로 18일(목)부터 21일(주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축복성회의 강사는 박순애 전도사이며 일정은 18-20일 저녁 7시30분, 21일(주일) 오전 11시20분, 오후 2시이다.

▲ 문의: (714)446-1000

굿네이버스 소리엘과 함께하는 러브 투게더 콘서트

굿네이버스는 소리엘 장혁재 목사와 함께하는 러브 투게더 콘서트를 26일(금) 오후 8시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개최한다.

▲ 문의: (714)722-4805

소망케어교실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여 소망케어교실을 LA와 애나하임에서 주2회 운영한다. 소망소사이어티는 한국어로 진행해 온 죽음준비, 치매 관련 교육 및 간병인 교육을 올해부터 영어로도 진행하기 위해 이중언어 강사진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확대에 나선다. 또한 산하 중창단의 장례식 조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구슬 자서전 ‘바람꽃’ 제2권 제작을 추진한다.

▲ 문의: (562)977-4580 소망케어교실

한국인의 갈등해소를 위한 힐링세미나

한국인의 갈등해소를 위한 힐링세미나가 2월3일(토) 오후 6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 4일(주일) 오후 4시 엘바인온누리교회(담임 박종길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하태균 교수(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문의: (213)435-6622

마가교회 담임 채동선 전도사 별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담임 채동선 전도사가 2024년 1월 15일 오전 4시 58분 향년 63세(1960년생)로 별세했다. 고 채동선 전도사는 종신에서 헌법과 교회사를 가르치며 여러 교회 분쟁을 중재한 채기은 목사(기독교신보 주필)의 손자이며, 일제 치하 신사참배를 거부한 채정민 목사의 증손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에 온 그는 물리학을 전공했다. 사업을 하던 그는 이후 신학을 공부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개척, 22년째 목회를 해



고 채동선 전도사

오다. 지난 몇 달 전부터 위암으로 투병 중 간으로 전이돼,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은 채은미 사모이다.

OC 교협 제33대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교회 살리고, 목회자에게 힘, 커뮤니티에 복음의 확산을”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제33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14일(주일) 오후 4시30분 미러클포인트교회(담임 박재만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장으로 취임한 박재만 목사는 “약한 형편 속에 목회를 하고 있지만 교협회장이라는 책임을 주신 것은 눈을 열어 힘든 자들을 바라보고 함께하라는 것”이라며 “주님의 평가기준은 내가 나누고 살렸느냐이다. 이를 위해 선배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끌고 온 ‘교회는 살리고, 목회자에게 힘을 주며, 커뮤니티에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는 일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민경엽 목사는 “교협은 교회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했으며 우리 지역을 섬기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해왔다. 특별히 지난 2년간 특별기도회를 비롯한 연합사역을 통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올해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의 신화가 창조되는 오렌지카운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열심히 뛰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정은 아나운서(GBC미주복음 방송)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

은 직전회장 심상은 목사가 신임회장 박재만 목사에게 교협 깃발을 인수인계했으며 심상은 목사가 이임사를 박재만 목사(순복음복미총회 증경총회장)가 취임사를 했다. 이어 이임회장 심상은 목사와 이임이사장 신원규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대통령상을 수여했고 신임회장과 이사장에게 취임패를 증정했다. 이어 후원이사장 김영수 장로와 후원이사 최용운 장로와 김수연 대표에게 추대패를 증정했다. 이날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가 영상으로 축사를 했으며 조봉남 장로(OC한인회장), 이영선 목사(GBC미주복음방송), 한기홍 목사(OC교협 이사, 은혜한인교회), 영 김 캘리포니아 40지구 연방하원의원이 축사했다. 또한 이영규 목사(순복음복미총회 증경총회장)가 신임임원단을 위해 축복기도했다. 한편 이창남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이원석 목사(OC목사회장)가 기도했으며 레이싱가대가 특별찬양, 심상은 목사가 ‘창의적 리더가 되라(민 13:30-3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OC목사회 중창단이 특송했으며 윤성원 목사(OC교협 이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설교세미나가 베델교회에서 열렸다



새한교회 창립46주년을 축하하는 케익커팅에 앞서 노영호 담임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새한교회 46주년 창립기념예배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새한교회(담임 노영호 목사) 창립46주년 기념예배가 14일(주일) 오전 10시30분에 거행됐다. 노영호 목사는 “46년간 새한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다”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 주 안에서 더 강건해지고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영호 목사 사회로 열린 창립기념예배는 양태담 장로가 기도했으며 시운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건강한 주일성수(출 20:10, 막 3:1-5)’라는 제목으로 노영호 목사가 설교했다. 노 목사는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는 주일성수를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첫째, 주일은 자신을 위한 일을 멈추는 것이다. 생계유지와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 등 나를 위해 했던 것 잠시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주일이다. 둘째, 주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며 여러 가지 섬김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셋째, 주일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단지 교회보다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되어 우리 주변에 고동받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여야 한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일성수로 새한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46주년 근속한 이재학 장로와 이덕화 권사에게 근속감사패를 증정했으며 종교등부 학생들이 특송했다. 이날 예배는 노영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선교사님, 선교지 영상 무료 제작해드려요”

하이퍼미션, 선교 현장 방문해 영상 찍고 유튜브 업로드

선교사들의 다양한 사역 중에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은 ‘선교 보고’다. 선교지를 위해 후원해주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영상·SNS에 익숙하지 않거나 선교의 열매가 바로 맺히기 힘든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은 선교 보고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에 직접 선교 현장을 찾아가 무료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하이퍼미션(대표 최지웅 목사)이 출범하고 첫 사역을 시작했다.

에서 만난 최지웅(40) 목사는 “선교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 좋은 사역을 하면서도 선교 보고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많았다. 교회에 보고하려는 선교사님들이 비슷한 구도의 사진만 수십 장을 가져오 시기도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열정이 영상을 통해 더 잘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이퍼미션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전주방송과 전북CBS 등에서 촬영감독으로 활동했던



마약·도박·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 공동체생활·영적 훈련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중독재활시설 건립·운영 추진

청소년의 각종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24시간 공동체 생활을 하며 규칙적인 치유 프로그램과 영적 훈련으로 중독 청소년을 치유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15일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정예분·대표 조현섭)에 따르면 국내 젊은 층의 중독 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마약 중독의 경우 10대와 20대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해 전체 연령의 약 34%를 차지했다. 도박중독 위험 군에 속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의 12.5%, 문제 군에 속한 청소년의 비율은 8.5%에 달했다. 청소년 게임중독 위험 군에 속한 비율은 5%인데, 향후 5년 내로 20%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독의 의학적 원인은 불분명하다. 명확한 치료, 수술 방법, 치료약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적 접근 모델의 한계를 직시하고 기독교에 기반한 심리 사회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 중독을 치유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영상 전문가다. 어릴 적부터 선교의 꿈을 키우며 영상 사역을 하다가 뒤늦게 신대원에 입학해 목회자가 됐다. 지난해까지 서울 도림교회(정명철 목사) 부목사로 있다가 하이퍼미션을 세우고 ‘영상 선교사’의 사명을 시작했다.

하이퍼미션 첫 영상의 주인공은 몽골 참사랑교회에서 사역하는 을지바트 선교사다. 몽골인인 을지바트 선교사는 한국 장로회신학대에서 유학하고 한국인 아내 민애령 선교사와 만나 현지에서 10년간 사역하고 있다. 최 목사는 다음 달 몽골로 떠나 약 한 달간 머물면서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다. 최 목사는 “교회를 몇 개 세웠는지, 성도가 얼마나 늘었는지 등 사역의 결과보다 과정에 있는 열매를 보여주는 게 목표”라며 “영상은 선교사님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후원계좌를 함께 넣어서 후원자와 직접 연결되게 할 예정이다.”

몽골 방문 이후에는 카자흐스탄 키프로스 태국에서 촬영이 이어진다. 영상 제작을 원하는 선교사들은 유튜브 ‘하이퍼미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난 대응 이렇게... ‘지진 대비 프로젝트’ 나선 선교사

김광현 일본 선교사, 재해 지역의 무목 교회에 무상 배포 계획

김광현(58) 일본 선교사가 일본 교회와 성도를 위한 ‘일본 지진 대비 책자 배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김 선교사는 “최근 지진과 쓰나미 등 잦은 재해에 노출된 일본 목회자와 성도들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했다”며 “재해 지역에 있는 1000여개 무목 교회(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무상 배포하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2001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파송 선교사로 일본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참사 당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대표 김병삼 목사)의 일본재해대책 본부장으로 샌다이 히가시마쓰시마 등 피난소를 중

심으로 일 년간 피난민에게 구호 물품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이를 계기로 재해 사역에 눈을 뜬 그는 아시아태평양신학대학원 박사 과정 중에 논문 주제를 ‘일본의 자연 재해와 선교’로 정하고 이에 대해 수년간 연구했다.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저서는 일본 자연 재해의 특징과 빈번한 재해에 대응하는 구체적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또 일본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재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 방법을 제시한다.

김 선교사는 “복음 불모지’ 일본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회·선교적 대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일본은 언제 재해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 지역”이라며 “강진으로 절망에 처한 일본인과 매일 지진 소식을 들으며 한 영혼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교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단·사이비 종교단체, 지역 침투 시도 연합해 대처”

고양시 범시민 비대위 출범

경기도 고양시 기독교계와 지역주민,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꾸

려진 고양시범시민비대위 출범(범시민대책위·위원장 지효현

목사)가 이단·사이비 종교단체의 지역침투 시도에 연합해 대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12일 고양 제자광성교회(박한수 목사)에서 발대식(사진)을 개최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까지 자문위로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가 지난해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의 한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 재차 지역사회에 침투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범시민대책위는 향후 신천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지역 여론을 모아 시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는 정예분의 청소년중독재활 시설(조감도)이 그것이다.

이는 미국의 중독치유시설인 ‘라 미션(La Mission)’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중독자들이 24시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규칙적인 치유 프로그램과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다. 전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서 교육, 특별활동을 통한 중독 대체 교육, 심신 단련 교육, 도덕·윤리 교육 등이 우선적으로 행해진다. 이와 함께 말씀 기도 찬양 등을 통해 믿음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영적인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목회자는 고민 털어놓을 곳 없어” ...마음 건강 빨간불

목회자들 잇단 자살에 “노회 차원의 자살예방 교육 시급해”

지난달 전북 익산의 한 주택에서는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A씨는 40대의 이중직 목회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계 안팎에 충격과를 던졌다. 기독교 자살예방단체에서는 ‘목회자 번아웃(정신적·신체적 탈진)’ 예방과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 코너에 몰린 목회자들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최근 발표한 ‘우울장애 진단-자살 사망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자살 사망자들(210명)이 진단에서 사망에 이르는 기간이 평균 4.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자 가운데 3분의 1은 1년 이내에 목숨을 끊었다. 이는 목회자와 같은 성직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형교회 목회자나 그 자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가 전례된 바 있다.

목회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뭘까.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 등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악화된 목회 환경이 큰 이유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목회자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경제적·정신적·관계적 갈등과 같은 내·외형적 요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안해용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 사무국장은 “팬데믹 이후 중소형 교회는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목회자들이 아픔을 공개할 경우 성도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목회 현장에서 오는 압박감으로 인해 상담을 받을 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 노회 내 목회자 모임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목회자들의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지원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본부장은 “목회자들의 번아웃을 예방하려면 교단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자살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달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번’ 통합 운영을 시작했다.



“로잔대회 성공 개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경험하자”

한국로잔위 정기총회

제4차 로잔대회를 8개월여 앞둔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재훈 목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은평리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영적 재작성과 부흥 동력을 제공하는 로잔대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유기성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장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회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며 “오순절 감람 사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자”고 권면했다.

한국로잔위는 9월 22일 개막하는 본 행사를 앞두고 중보기도 운동, 말씀네트워크 활동 등 지난해부터 펼쳐온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로잔 정신과 비전을 나누는 ‘선교적 대화’는 3월과 5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한국로잔위 생명위원회가 프로라이프(낙태 반대운동) 연합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대구동신교회와 공동 주관하는 ‘생명주간 및 생명주말’은 오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www.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피종진 목사 1월 부흥성회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1(월) 오전 2(화) 오후
3(수) 오후 저녁
4(목) 저녁
5(금) 오전
5(금) 오후
6(토) 오전
7(주일) 저녁
8(월) 오전
8(월) 2시
8(월) 저녁
9(화)~10(수)
11(목) 오후
11(목) 저녁
12(금) 오후
12(금) 저녁
13(토) 오전
14(주) 저녁
15(월)
16(화)
17(수)
17(수)
18(목)
19(금) 오전
19(금) 저녁
21(주) 저녁
22(월)~23(화)
24(수)
25(목) 오전
25(목) 오후
26(금) 오전
26(금) 오후
27(토) 오후
27(토) 오후
28(주)~31(수)
29(월) 오전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47)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2023년을 보내며 한국교회의 선교에 감사하는 것은”

지난 2023년을 마무리하며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다.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대한 감사이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던 2023년에도 교회는 선교명령을 지속적으로 감당하여 왔다.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선교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거의 모든 교회가 동의한다.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합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신도들의 이해이며, 교회가 선교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의 선교에 대한 순종적인 자세가 남다르다.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가지 못해서 빛진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복음에 빛진 마음으로 선교적인 열정이 가득한 사역자들이다.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교비를 줄이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없다. 재정담당자들이 교회의 예산 형편을 말하면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선교비는 늘려야 한다는 것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이다. 이런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 감사한다.

선교에 우선권을 부여함에 감사한다. 연말연시의 그 바쁜 일정에도 세계선교를 위해 시간을 내어 진지한 모임에 참여함에 감사한다. 한국교회 선교 전략을 논의하고 선교사 대표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선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줌에 감사한다. 부족함을 탓하고 잘못을 질책하는 지도자가 아니

라, 목회자의 심정으로 선교사를 세워 주기 위해 번뜩이는 지혜를 따듯한 사랑으로 감싸 나누어 줌에 감사한다. 교회가 세계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전력질주 하는 모습에 감사한다.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불투명하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과 결론을 확신하고 선교명령을 순종하려 앞서 달려가는 모습에 감사한다. 수많은 말들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말씀을 붙잡으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깃발을 들고 앞장서는 장수의 모습을 보며 감사한다.

한국교회의 헌신적인 평신도들로 인하여 감사한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보아도 한국교회의 성도들만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 자신들의 형편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는 성도들이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사는 노년층의 성도들까지도 절약하여 교회에 헌금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경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삶을 드리는 성도들이다. 한국교회의 장로나 집사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자신의 직장과 사업보다도 교회 봉사에 더 열심이다 라고 생각될 만큼 섬기는 것이 특출하다. 어느 나라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직분자들만큼 정성을 다해 섬기겠는가. 남가주지역의 S교회는 매년 연말에 특별새벽부흥회로 유명하다. 새벽마다 2,000 여명에 달하는 참석자들을 위해 날마다 다른 메뉴의 아침식사를 준비하여 섬긴다. 그 많은 성도들에게 달콤하게 구운 고구마를 날마다 섬기는 성도도 있다. 아이들은 누워서라

도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그 아침식사까지 학교로 달려가기 위해 부모들을 재촉하여 교회로 나온다. 개근한 아이들에게 주는 메달과 후드티가 그들의 열심에 불을 지핀다. 이런 열정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이함이다. 한국교회

의 성도들은 자신의 집을 구하기 전에 교회의 건축헌금을 내는 열정으로 교회를 건축한다. 한국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당을 증축하기 전 다른 나라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선교사를 통해 현지인들을 섬겨왔다.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면 가장 먼저 선교헌금이 들어오는 것도 특이하다. 연말연시 모이는 특별헌금에 해외선교지에 보내는 선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것에도 감사한다. 이런 열정과 헌신에 우리는 감사한다.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에 감사한다. 한국교회의 열심 있는 기도는 전 세계 교회에 도전 을 주고 감동시켰다. 전국의 기도원을 채우고, 기도의 동산을 울부짖으며 하늘을 감동시킨 한국교회의 기도가 세계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선교사를 세웠다. 한국교회에 기도의 열기

가 많이 식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교회들은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들은 그 뜨거운 기도에 목말라하고 있음에 감사한다. 선교사들이 아프다고 하면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교회가 나서서 기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음도 감사하다. 주일예배 시간에 선교사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주신도 감사하다. 교회의 소그룹 모임 이름들을 선교지 이름으로 대신하여 선교지와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심에 감사한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선교 열정에 감사한다. 천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카톡방에 모여 전 세계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의 모든 의료에 관련한 질문과 요청까지도 들어주고 응답하고 지원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에도 감사한다. 흑시라도 특별한

요청이 묻혀 질까 봐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있음도 감사한다. 전문 대중음악인들이 함께 “들어볼까” 찬양팀을 구성하여 전도함도 특이하다. 연예인들이 모여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목상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주고 모든 가족들을 전도하여 간증함도 감사하다. 교수들이 캠퍼스에서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파송 받아 섬김도 감사하다. 조기 은퇴를 결정하고 선교지로 파송 받아 교수로 섬기려고 나가는 열정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오랜 기간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휴가 기간을 선교지를 방문하고 다양하게 섬기는 모습도 감사하다.

2023년에도 어김없이 한국 선교사들의 순종과 개척정신과 담대함에 감사한다. 2022년 12월말로 22,688명의 한국선교사들이 169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숫자는 한국의 인정받은 선교단체와 교단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의 숫자만을 포함하고 있어, 이 통계에 들지 않은 선교사들까지 한다면 족히 3만명은 될 것이다. 또한 미주 한인교회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만큼 한국교회는 선교명령에 순종하여 왔다. 교회 숫자와 인 구비례로 많은 선교사들이 파 송 받아 사역하고 있는 것에 감 사한다. 한국선교사들의 개척 정신에 감사한다. 유엔에 가입 된 나라가 참관회원국인 바티 칸과 팔레스타인까지 하면 195 개국인데 이 가운데 169개국에 한인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 는 것이다. 현지에 거주하지는 못하지만 사역대상국으로 포 자면 195개국 모든 나라가 포함 될 것이다. 한국의 재외동포 정에 따르면 2023년에 181개

국에 708만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선교사는 169개국에 분포하고 있으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사역을 하는지 알 수 있 다. 브라질과 인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대부분이 자국내 타지로 나간 선교사들이다. 그러나 한국선교사들은 대부분이 타국의 타민족에게 선교를 하는 선교사이다. 우리가 방문하는 모든 나라에서 한국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가 알게 되면 더욱 감사한다.

한국선교사들의 무모하리 만큼 담대함으로 선교하고 있음에 감사한다. 선교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전문적이 지 못한 분포라고 생각될 때가 많다. 더욱 단체들도 전문 영역 이 불분명한 것이 아쉬울 때가 많이 있다. 팀을 이루어 지속적

인 사역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들이 개척정신으로 시작한 사역들을 일구어 나가는 모습은 한국선교사들만의 독특한 장점이다. 단체의 전폭적 지원도 없이 비의료인인 선교사가 의과 대학을 설립하고 한 나라에서 유명한 의과대학으로 성장시킬 것을 꿈꿀 수 있겠는가? 강도를 만나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가정이 모든 수입의 80% 이상을 들여 아프리카 학교사역을 멈출 수 없는 선교사 가정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무모함이, 이런 계산 없는 믿음이 한국 선교사들에게 있음에 감사한다.

은퇴 연령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은 아무런 보장이 없음에도 사역을 멈추지 않음에 감사한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은 은퇴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었다. 이제는 10년이면 현재 사역하는 절반에 가까운 선교사들이 은퇴연령에 달한다. 이들을 위한 은퇴 계획이 한국교회에는 아직 없다. 이미 사역 기간이 30년이 넘는 선교사들의 카톡방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공식 은퇴 이후의 사역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지속된다. 누구도 편하게 쉬겠다는 선교사가 없고, 어떻게 마지막 부름이 있을 때까지 사역을 감당할까 계획하는 선교사들의 불타는 열정을 본다. 거의 모든 선교사 가정에도 각자 다른 아픔을 있지만 그 아픔이 사역을 멈추게 하는 못한다. 그 아픔을 이길 만한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한다. 한국 선교사들이 섬기는 다양한 선교지 마다 아픔이 있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빛으로 타 들어가며, 소금으로 녹여져 내리는 선교사들과 그들을 보내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한다. 2024년에 더욱 환한 빛을 발할 선교사들과 그들에게 진정된 동역자 한국 교회가 있음에 감사한다. 거기에 주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dr.yongcho@gmail.com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 (16)



강태광 목사
(월드케어USA대표)

고향 친구 아서 그리브즈

C. S. 루이스의 삶에서 친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가 일찍 죽었다는 것과 늦은 결혼을 고려하던 루이스에게 친구는 매우 중요했다. 루이스가 가장 오랜 기간 친구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고향 친구 아서 그리브즈(Arthur Greeves)다. 아서 그리브즈는 사실 C. S. 루이스보다 세 살 연상이다. 루이스의 형 워런과 동갑이다. 그는 엄밀히 말하면 루이스의 동네 형이다.

아서 그리브즈는 벨파스트에서 가장 부유한 방직업자 조지프 그리브즈의 막내아들이었다. 그의 집은 루이스가 어린 시절을 보낸 리틀리 맞은편의 큰집에서 살았다.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그리브즈를 어린 시절에 만난 적이 없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알리스터 맥그래스에 의하면 루이스가 1907년 5월에 쓴 편지에 어린 시절에 둘이 만났던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편지는 9살의 C. S. 루이스가 기숙학교에 있는 형 워런에게 보낸 편지였다. 루이스는 집에 새로운 전화기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형에게 전하면서 새 전화기로 그리브즈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를 못했다는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이 편지의 사연에 의하면 아서 그리브즈는 루이스나 그의 형 워런이 잘 아는 사이였던 것이 분명하다.

어린 시절 아서 그리브즈와 CS 루이스의 끈끈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더 있다. 1914년 4월 중순 마지막 학기를 위해 물번 칼리지로 돌아가려던 루이스는 아서 그리브즈 자신이 병으로 앓아누웠으니 한번 찾아와 달리는 부탁을 받고, 루이스는 아서 그리브즈를 찾아갔다. 그리고 루이스는 그리브즈의 침대 옆에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했다.

그 때 그리브즈 침대 옆에서 발견한 책이 거버(H. M. A. Guerber)의 <북유럽인의 신화(Myths of the Norsemen)>다. 루이스는 그리브즈에게 “신화를 좋아하느냐?”라고 질문했고 두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신화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때부터 루이스와 그리브즈는 소울 메이트가 되었고 루이스가 죽을 때까지 50여 년간 긴밀하게 편지를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다.

데빈 브라운에 의하면 첫 편지는 C.S. 루이스가 물번 칼리지에서의 마지막 기간을 마칠 때 쓴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루이스가 캐스턴으로 옮긴 직후에 쓴 편지로 두 사람의 우정이 성숙한 단계로 발전함을 느낄 수 있다. 루이스는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와 다짐을 표현하면서, 아서 그리브즈에게 가능한 한 빨리 편지를 보내라고 요청했다.

그 후로 루이스는 아서 그리브즈와 수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삶과 생각을 나누었다. 데빈 브라운은 <C. S. 루이스의 생애>에서 루이스가 아버지와 형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많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서 그리브즈라고 말한다. 단행본 <루이스가 아서 그리브즈에게 보낸 편지들(The Letters of C. S. Lewis to Arthur Greeves)>에 296통의 편지가 담겨 있다.

루이스는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아서 그리브즈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솔직한 루이스의 마음이 담겨 있어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기숙학교와 군대 생활로 떠난 형 워런의 빈자리를 그리브즈가 차지했다. 마음을 나누고 비밀을 털어놓는 친구가 된 것이다. 일례로, 커크파트릭 선생을 만나면서 루이스는 자신의 불

신앙이 깊어지자 자신의 상태를 그리브즈에게 털어놓았다. 1916년 10월 루이스가 보낸 편지에서 ‘기독교도 종교적 신화라고 생각한다’라고 표현했다. 이 편지 후 두 사람은 격렬하게 논쟁하며 적어도 여섯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고 이견(異見)을 도무지 좁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다.

아서 그리브즈와 루이스는 상호 격려를 나누는 친구였다. 성장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선한 영향력은 굉장하다. 루이스는 견고한 믿음과 안정된 정서를 가진 아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루이스는 자신의 편지에서 아서로부터 자애심과 소박함을 배웠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서 그리브즈도 C. S. 루이스에게 편지를 자주 보냈고, 그의 일기장에서 루이스에 대한 염려를 자주 언급한다. 그리고 루이스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했고, 그의 삶에 루이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의 일기장에 “친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루이스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루이스를 향한 마음을 표현했다.

루이스는 1차 대전 중에 참전했는데 참전 초기에 참호열에 시달려 고생했다. 프랑스 해안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아버지에게도 편지를 쓰고 그리브즈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자신

의 신앙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루이스는 거의 매번 그리브즈에게 편지를 보내 상세한 설명을 했다.

병원에서 그리브즈에게 보낸 편지에서 루이스는 당시 읽던 책, 앞으로 읽을 책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냈다. 루이스는 그리브즈에게 종종 이런 편지를 보냈다. 또 루이스는 그리브즈에게 보낸 어느 편지에서 “사는 것이 지극히 즐겁거든 글을 써라! 잉크는 모든 병의 훌륭한 치료제라는 것을 나는 오래전에 발견했네”라고 썼다.

아서는 루이스에게 형과 아버지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와 루이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 루이스는 자신의 마음의 비밀과 인생의 모든 과정을 친구에게 나누었다. 루이스는 루이스의 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매일 편지를 보내는 무어 부인에게 아서 집 주소 알려 주어서 편지를 보내게 했다. 아버지가 불편해하는 무어 부인의 편지를 아서 그리브즈가 대신 받게 했다.

루이스는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나누는 것이다. 루이스는 자신의 영적 방황도 그리브즈에게 알렸다. 그리고 자신이 영적인 회복을 하고 다시 기독교 신앙으로 복귀했던 1931년 10월 1일에도 어김없이 그리브즈에게 편지를 보냈다. 루이스는 아서 그리브즈를 평생 친구로 교체하면서 삶의 고민과 비밀을 나누는 친구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예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의 여인 (마26:6-13) 찬 211장

사람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사람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비밀에 감추어진 분이시다.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통하여 증거로 나타난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에게 모두 부어 드린다.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예수님에게 모두 부어 드리는 것은 허비라고 생각한다. 왜 허비라고 보는가 하면 옥합의 가치는 알지만 예수

님의 가치는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았다. 구원받은 값은 어떠한 것으로도 값을 수 없는 것임을 안 것이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되는가를 참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 가치를 깨달음이 부족하기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주님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내가 복받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을 바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깨달을 수록 자원하는 헌신을 한다. 허비가 아니다.

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 가롯 유다 (마26:14-16) 찬 285장

제자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도 보았고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일을 한 것이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마귀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다. 마귀가 생각으로 그를 지배하고 그를 이용한 것이다.(요13:2) 교회를 다니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참석한다. 그러나 마귀의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행한 자가 된다. 예수님이 오심은 마귀에게서

구원하심에 있다. 어떻게 해야하는가? 나의 생각을 주님에게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듣기만 하고 생각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라. 계속하여 생각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감동이 일어나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나의 구원 주이심으로 모시게 된다. 생각이여 진리의 말씀대로 움직이라. 그것이 주님께 가는 것이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에게 그렇게 하여 가까이 가면 주님의 구원을 만난다.

수 나의 의지의 결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 (마26:31-35) 찬 428장

주님을 믿는 것도 주님의 도움으로 된다. 주님을 믿고 사는 것도 주님의 도움으로 된다. 주님의 도움 대신에 자신의 의지를 믿으면 곧 넘어진다. 우리에게 아직도 죄가 살아 있다. 그 죄를 이길 수 없다. 주님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베드로가 주님의 도움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를 믿은 결과는 죄가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공격할 때 그는 예수님

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한다. 죄의 세력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죄를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능력을 받는 시간을 가지라. 믿음의 교만과 게으름에 빠지면 죄의 능력으로 인하여 넘어진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능력이 채워진다.

목 이러한 때도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26:45-54) 찬 425장

예수님이 집하시던 밤의 사건이다. 가롯 유다가 앞장서서 나타난다.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것이다.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한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죄인들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려고 오셔서 저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룩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요 주님은 그 뜻에 복종하여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음은 오직 죄인을 구하시고자 하

는 거룩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사건이다. 나의 인생의 인도자는 주님이시다. 주인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만나면 내게 갈등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라. 나의 육신에서 이해하는 것을 따라 주님을 불신하지 말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가 이기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금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마26:69-75) 찬 336장

주님을 믿는 나를 항상 돌보아 주셔야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살 수 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상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믿음에서 넘어진다.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신다. 교만하지 말라. 나를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욕하고 떠나게 하는 죄가 나에게 살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의 주님이 그 죄의 능력을 통치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넘어진다. 주님은 마귀가 베드로를 밀 깨부듯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교만하지 말라. 욕과 같은 동일한 고난을 받을경우 그대도 찬양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베드로같이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자신을 모르고 죄의 능력을 모르는 무지한 것이다. 주님의 보호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죄에 넘어진 형제를 보고 너무 정죄하지 말라.

토 시기심은 죄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며 대적하라 (마27:17-25) 찬 250장

죄는 우리 안에 살아 있다. 평생 나에게 죄에서 죄의 생각들이 나타나서 그 생각을 따라 산다. 이를 죄의 종이라고 한다. 죄에서 시기심이 나타난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주동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죄는 그들에게 시기하는 생각으로 계속하여 충동하여 예수님을 초기에는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죽이고자 한 것이다. 우리 안에

서 죄는 다양한 생각으로 오늘도 내게도 나타나서 충동하여 그렇게 살도록 한다. 교만. 불만. 욕심. 불평. 원망. 미움 등등 이러한 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 수시로 나타나는 시기심을 누리지 말라. 마음에 품지 말라. 작은 시기심의 정체를 알고 만지지도 말라. 시기심의 생각은 마음에 품고 성령의 거룩한 생명의 생각을 배반하지 말라.

기독교교육 (41)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쉐마와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이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처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에베소서 4:13의 말씀을 빌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성숙하게 하는 것이 곧 기독교교육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의 기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기초는 성경공부입니다.

지 않습니다. 주어진 자원과 환경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언제든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쉐마가 가르쳐주는 기독교교육의 원리 세가지입니다. 이 원리들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면 학습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뿌리 깊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누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쉐마"입니다. 쉐마는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사마아'의 명령형으로서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6:4-9이 "쉐마 이스라엘(즉,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문단의 제목이 쉐마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쉐마에서 기독교교육의 원리를 찾는다는 말이 "쉐마교육"을 지지하거나 장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받들어 부모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쉐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쉐마교육의 주체는 부모였고 목적은 율법전수였습니다.

쉐마에 기독교교육의 원리 세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全)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는 신앙생활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충부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되게 일하느라 남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학교에 전적으로 맡겨놓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나는 교사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핑계로도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전인격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지식적인, 감정적인, 또는 의지적인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성의 힘을 모두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쉐마교육의 율법전수 부분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만이 기독교교육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학생들이 사랑하는 동기로 기독교교육에 임한다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동기로 기독교교육에 임하면 실증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의무감으로 기독교교육에 뛰어들면 탈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이외의 동기로 기독교교육에 동참하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기독교교육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합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기를 기대하시고, 고차원의 법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다루지만 예수님의 법은 행위와 함께 동기가 되기도 다루기 때문에 고차원적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법은 노(怒)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은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쉐마에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교육의 원리 두번째는 말씀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여섯번이나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계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배우고, 계속 배우고, 평생 배우는 것이 기독교교육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율법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쉐마교육을 실천하고자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쉐마에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교육의 원리 세번째는 창의적인 가르침입니다. 7-9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독교교육에는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

쉐마에는 기독교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과내용 숙지, 그리고 창의적인 교수 방법입니다. 그 원리들을 활용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입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1,300억과 예수

세상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 TV 프로...

그녀는 최근 모교인 경희대학교에 1,300억을 희사하...

그분의 꿈대로 한국도 노벨 의학상을 받는 실력 있...

지금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1,300억이라도 내어놓을 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

bible66@gmail.com

신앙 에세이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대부분의 성도님이 떠나가고...

자정이 다 된 시각에 30대로 보이는 한 청년이 교회 문을...

리고 거친 얼굴에서 삶의 무게가 보였고, 한 쪽 눈을 상실하고...

갈 곳이 없다는 그의 말에 제가 머물렀던 하숙집에 데리고...

그렇게 하숙집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지자 하숙집 주인에게...

그 사람, 참 죄송하고 그립습니다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렸고, 마침내 그를 향한 저의 사랑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

찬 바람에 눈까지 내린 추운 겨울 밤, 그분을 데리고 교회로...

몇 분도 채 흐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망치질하고 호흡이...

다니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견딜 수가 없는 후회가...

그렇게 어둠은 깊어갔고 그 위로 눈은 실새 없이 내렸습니다...

송찬우목사의 조각 글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양념 잘 된 커피

오늘 교회를 다녀와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느 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형제의 가정에 심방 차...

후, 커피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제가 블랙커피를...

주인 형제가 제게 먼저 권했습니다. "목사님, 식습니다. 어서...

달달해야 할 커피가 짜디짤았습니다. 뺄 수 없고 짜다고 말할 수도...



로 미소 짓게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잘 한...

그리고 그런 그 때를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제게 하나님은 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담임 목사 청빙 공고

여호수아장로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소속이며, 미국 뉴저지 중남부에 위치하고...

자격 요건

- 1.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2.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인정하는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
3. 목사 안수 후 Full time 으로 목회 경력 3년 (담임목사/부목사 포함) 이상인 분
4.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5. 이중언어 설교(한국어/영어) 및 소통이 가능한 분 (영어 목회에 비전이 있는 분)
6. 목회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사진 첨부, 한국어, 영어 각 1부)
2.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2)
4. 신학교 졸업증명서 (1)
5.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자가 직접 email로 제출)
6.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한국어 설교 2회분, 영어설교 1회분) (USB, CD, 또는 동영상 링크)
7. 신앙 고백서
8. 목회 철학 (소명)
9. 목회 계획서 (장단기 목회 계획)

유의사항

- 1. 모든 서류는 여호수아장로교회 공식 이메일로만 접수 받습니다.
2.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련하여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모든 서류는 PDF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빙 결과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전화문의는 사절합니다.
5. 제출마감은 2024년 3월 31일이며, 제출처는 jpc1326@gmail.com 입니다.

* 문의 사항들은 이메일(cbycerim65@gmail.com, 청빙위원회 임종호 장로)로 문의하면 됩니다.

여호수아장로교회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버클리시온장로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버클리 시온장로교회는 1999년 창립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 담임 목회자의 은퇴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후임 담임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자격

-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이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2) 정규신학대학원(M.Div) 이상 학위를 받으신 분
3) 10년 이상 목회 경력(부교역자 기간 포함)이셨던 분
4) 합법적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
5) 이중언어, 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 1) 자필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2) 최종학력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3) 추천서 2통(추천자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
4) 목회비전 및 목회계획서
5) 가족소개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가족사진)
6)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 2편
7) 신앙고백서

서류제출처 및 연락처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련하여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버클리시온장로교회 청빙위원회 Berkeley Zion Presbyterian Church

545 Ashbury Ave. El Cerrito, CA 94707 cnk903@yahoo.com 전화) 510-912-1955(신태환 목사)

“성경적 회복 Biblical Recovery” 신학적 접근

올해 96세이신 나의 모친께서는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오시다가 약 2년전부터 허가 굳어지는 증세로 인하여 최근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다. 검진하는 과정에서 2군데의 이비인후과를 거쳤지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USC 대학병원에 연결되어서 검진한 결과 암으로 진단이 나왔고, 의사는 수술, 방사능 치료, 호스피스 등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물론 수술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모친께서는 연세 때문에 망설이셨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 상태에서 충분히 수술을 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의사의 설명에 어머니께서는 용기를 내서 수술 결정을 받아들였고, 수술은 잘 진행되어서 지금은 순조롭게 회복중이다. 나는 최소한 허는 포기되는 걸로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턱 아래로 한 뼘 가량을 절개해서 암 조직을 제거하고, 다리에서부터 조직을 이식시켜서 허의 조직이 살아나도록 하고, 암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 림프 2군데를 제거하는 비교적 큰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의사들의 놀라운 기술과 잘 갖추어진 병원의 시설에도 놀랐지만, 무엇보다 신체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의 몸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깊이 감사드린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 139:14).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극적인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위기가 닥치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열왕기 저자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그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그의 전후에 없다고 증거해준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왕하 18:5). 그러나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서 처음부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한 것은 아

니었다. 그의 제위 14년에 앗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앗수르를 배신한 자신의 행위가 범죄였다고 자복하면서, 산헤립이 요구하는 금과 은의 분량을 채우기 위하여 심지어는 여호와와 성전 문과 기둥에 칠해진 금까지 벗겨서 산헤립에게 바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왕하 18:13-16).

유다에 대하여 계속되는 산헤립의 위협은 이제는 차원을 달리하여 여호와께 대한 도전

스러운 단계에까지 이른다: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사 37:10). 드디어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의 불경스러운 도전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드린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하 6:24-25).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위기의 상황으로까지 이어진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을 상황에 이르자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드린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אל הקיר) 여호와께 (אלהוה) 기도하여 이르되” (사 38:2). 여기에서 “향하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사 38:5-6). 히스기야는 회복되어서 15년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러니한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출생한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길로 행하여 온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 “그

향하여 기도드리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도록 역사하신다. 이러한 므낫세의 기도 역시 솔로몬의 기도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라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서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대하 6:36-39).

므낫세의 기도는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향해 예정된 하나님의 불가피한 진노를 돌이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므낫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로를 불가피하게 만든 장본인인 악한 왕 므낫세와 같은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주시며, 그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경배 드린다. 예수님께서든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눅 17:19)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온전한 회복은 육체의 단계를 넘어서서 영혼 구원으로부터 이어져야함을 보여준다.

djkim3333@gmail.com



김동진 학감 (KAPC 개혁성령회신학대학원, 구약 Th.D)

“성경적 회복”

으로 이어진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사 36:18, 20). 여호와께 대한 앗수르 왕의 이러한 불경스러운 도전 앞에서 히스기야는 무력함을 호소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를 위한 기도를 부탁한다: “오 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 37:3-4). 히스기야는 아직 왕으로서의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앗수르 왕의 모독은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는 불경

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라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 37:17, 20).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기도가 접수되었음을 선포한다: “내가 앗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사 37:21). 히스기야의 기도에도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의 회복과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라” (사 37:31, 35).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성전 낙성식에서 드러졌던 솔로몬의 기도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여”라는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가 두 번 사용되고 있다. 히스기야가 그 열굴을 “벽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그것은 곧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드림을 의미한다. 히스기야의 열굴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곧 여호와와 성전을 향한 방향임을 의미하는데, 이것 역시 성전 낙성식에서 드러진 솔로몬의 기도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다: “한 사람이나 혹은 그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제양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대하 6:29-30).

여호와와 성전을 향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받아들여졌고,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라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한 그 모든 격노 때문이라” (왕하 23:26).

역대하 33장에는 므낫세에 대하여 열왕기하에 기록되지 아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 (대하 33:10-13).

악한 왕의 대명사인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서 여호와를

Exclusive Offer Available at Flushing, Fort Lee, Jericho, and Palisades Park Branches!

11 Month Certificate of Deposit

5.25% APY*

The Bank of Princeton

thebankofprinceton.com | 609.921.1700

*APY = Annual Percentage Yield. Promotion available at Flushing, Fort Lee, Jericho, and Palisades Park branches ONLY. Offer valid on an 11 Month CD with a minimum opening deposit of \$500 per tax ID. Once the initial 11 Month CD time has elapsed, the CD will roll over for an additional 11 Month CD at the prevailing interest rate. This will continue until customer notifies the Bank within ten (10) days of maturity date. Promotion begins at 9:00AM EST on January 8, 2024,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without notice. Early withdrawal penalty may apply; fees may reduce earning. Other 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



저희 프린스턴 은행은 한인 고객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자 및 예금 상품 안내를 포함한 궁금하신 사항은 www.thebankofprinceton.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문의로는 플러싱, 제리코, 포트리, 팰리세이즈파크 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